

## **21 Prayers for Israel: Isaiah 62 Global Fast (May 7-28, 2023)**

**이스라엘을 위한 21 가지 기도: 이사야 62 글로벌 금식(5 월 7-28, 2023)**

Event: *Encounter God Service (EGS)* –Friday at 7:30pm(April 28, 2023)

예배: 이지에스 금요 예배 – 금요일 저녁 7:30 분 (04 월 28 일 2023 년)

### **I. INTRODUCTION 소개**

*I will speak on 21 prayers in a brief and precise way. We will not cover them in detail. I will give you a snapshot of each one of them briefly. There are well over 100 passages that could be on this list. And so these are not the most important 21 passages. It was difficult to pick only 21 out of 100+ passages to pick from. I encourage you to ask the Lord to mark your heart with about 5-6 of these passages. Do not try to learn them all and do not try to master them all, just pray “Lord, give me 5 or 6 that I will get to know and that I will pray often.*

21 가지 기도에 대해 간단하고 명확하게 말하려고 한다. 그것들을 자세히 다루지는 않고 각각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할 것이다. 이 목록에 포함될 수 있는 구절은 100 개가 훨씬 넘기 때문에 이것은 가장 중요한 21 구절이 아니다. 100 개 이상의 구절 중 21 개만 고르기가 어려웠다. 나는 당신이 이 구절들 중 약 5-6 개로 당신의 마음을 인치시도록 주님께 간구하길 격려한다. 그것들을 모두 배우려고 하지 말고 그것들 모두를 숙달하려고 하지 말라. “주님, 제가 알게 되고 자주 기도할 수 있도록 5 개 또는 6 개를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라.

- A. Join several million who will pray for Israel for at least **1 hour a day for 21 days** (May 7-28) see **Isaiah62Fast.com** for details. **NOTE:** *I will record a 2 minute prayer for each of these 21 prayers on Mike Bickle App*—see the section on my app called **“Growing in Prayer”** (to hear my EPs). **21 일(5 월 7-28 일) 동안 하루에 최소 1 시간씩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할 수백만 명의 사람들과 함께 동참하라.** 자세한 내용은 **Isaiah62Fast.com** 을 참조하라. 노트: 나는 **Mike Bickle 앱**에 21 개의 2 분기도를 올릴 것이다 앱의 **“기도의 성장”** 부분을 참고하고 듣기를 격려한다.

**NOTE:** *Tomorrow (4/30/23) I take these 21 prayers into our studio to pray each one for 2 minutes. I put this recording on my MikeBickle.app where I have a section called “Growing in Prayer” (each month I select various biblical prayers to comment on for a few minutes and then I pray for them for a few minutes—it is not a visual recording but an audio recording for people to hear while working out, walking or driving—I want to help give them language for various biblical prayers. As we develop language on what to say when we pray then our hearts move more. Biblical language is the language of God’s heart. I have taken these passages over the years and say them to God and little by little I learn how to say them more clearly. In this way, my heart has connected more to them. So, tomorrow I will pray for 2 minutes for each of these 21 prayers with the hope that a few of these prayers will touch your heart more. These recorded prayers will be on my app tomorrow (4/30/23). I want to help people get language because in my early days of growing in prayer a stumbling block in my prayer life was that I did not have language to express my prayers—I did not know what to say. I tried to pray for an hour but at the 2-minute mark I was out of language. Developing language in prayer is essential.* 노트: 나는 내일(23/4/30) 이 21 가지 기도를 스튜디오로 가져가 각각 2 분씩 기도할 것이고 이 내용을 **MikeBickle.app** 에 올릴 것이다. 거기에는 **“기도의 성장”**이라는 섹션이 있다(매달 나는 다양한 성경적 기도를 선택하여 잠깐 설명한 다음 그것을 위해 몇 분 동안 기도한다. 사람들이 운동할 때, 걷거나 운전할 때 들을 수 있도록 시각적 녹화가 아닌 오디오 녹음이다. — 나는 그들에게 다양한 성경적

기도를 위한 언어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싶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에 대한 언어를 발전시킬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 많이 감동받는다. 성경의 언어는 하나님의 마음의 언어이다. 나는 수년에 걸쳐 이 구절들을 취하여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조금씩 그것들을 더 명확하게 말하는 방법을 배운다. 이런 식으로 내 마음은 그것들과 더 많이 연결되었다. 그래서 내일 나는 이 21 가지 기도 중 몇 가지가 여러분의 마음을 더 감동시키기를 바라며 이 21 가지 기도를 각각 2 분씩 기도할 것이다. **이 녹음된 기도는 내일(4/30/23) 내 앱에 올라갈 것이다.** 나는 사람들이 언어를 개발하도록 돕고 싶다. 기도 안에서 성장하는 초기의 나의 기도 생활의 걸림돌은 기도를 표현할 언어가 없다는 것이었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다. 나는 한 시간 동안 기도하려고 했지만 2 분이 지나자 할 말이 없었다. 기도할 때 언어를 발전시키는 것은 필수적이다.

- B. We pray that the Lord will raise up 100 million intercessors for Israel. God promised to appoint those who will not be silent until Jesus returns; this speaks directly of those who would be born in the generation that He returns! These intercessors will “remind the Lord” of His promises for Jerusalem as prophetically declared in many places throughout the Old Testament. 우리는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1 억 명의 중보자를 세우시기를 기도한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침묵하지 않을 사람들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이들은 예수님이 돌아오실 세대에 태어날 사람들을 말한다! 이 중보자들은 구약성경 곳곳에서 예언자들이 선포한 예루살렘에 대한 그분의 약속을 “주님께 기억나게” 할 것이다.

***‘On your walls, O Jerusalem, I have appointed watchmen; all day and all night they will never keep silent. You who remind the LORD [of His promises], take no rest for yourselves; <sup>7</sup>And give Him no rest until He makes Jerusalem a praise in the earth [at Jesus’ return]. (Isa. 62:6-7, NAS)***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sup>7</sup>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사 62:6-7)**

*We are praying for a 100 million Gentile intercessors to pray for Israel the nation and Jerusalem the city. In Isaiah 62:6 God promised to appoint or sovereignly put watchmen in place. I will only highlight a few phrases in each one of these 21 prayers in this session.*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과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할 1 억명의 이방인 중보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이사야 62 장 6 절에서 하나님은 파수꾼을 임명하거나 주권적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나는 이번 세션에서 이 21 개의 기도에서 몇 구절만 강조할 것이다.

*Notice in Isaiah 62:6, Isaiah said “They will never be silent in praying by reminding God of His promises. Many of these 21 passages are promises that God gave Israel to remind Him or to pray back to Him. The Lord is saying “Tell Me what I promised Israel—pray or say it back to Me.” Isaiah spoke of “reminding God of His promises.” That is the approach that we are taking here with these 21 passages. Some of these 21 passages are promises to pray back to God. The Lord promised to sovereignly set watchmen in place that will never be silent until Jerusalem is a praise in the earth. **Jerusalem only becomes a praise in the earth when Jesus returns.** Right now, Jerusalem is a controversy in the earth. When the Lord promised to set watchmen in place that will never be quiet—in essence He is saying that they will engage in prayer “until Jesus returns” and so this passage is talking about the intercessors who are alive in the generation that the Lord returns and makes Jerusalem a praise in the earth.*

이사야서 62 장 6 절에 보면 이사야는 “그들이 기도할 때에 잠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나게 하여”라고 했다.

이 21 개의 구절 중 많은 부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분을 상기시키거나 그분께 다시 기도하도록 주신 약속이다.

주님은 “내가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것을 말하라. 나에게 그것을 기도하거나 다시 말하여라.”고 말씀하신다. 이사야는 “그분의 약속을 상기시켜 드리는 것”에 대해 말했다. 그것이 우리가 여기에서 이 21 개의 구절과 함께 취하고 있는 접근 방식이다. 이 21 개의 구절 중 일부는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겠다는 약속이다. 주님은 예루살렘이 세상에서 찬송을 받을 때까지 결코 잠잠하지 않을 파수꾼을 주권적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예루살렘은 오직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만 이 땅에서 찬송이 된다.** 지금 예루살렘은 이 땅에서 논쟁거리다. 주님께서 결코 잠잠하지 않을 파수꾼을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본질적으로 주님은 그들이 ‘예수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기도에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따라서 이 구절은 주님이 돌아오실 세대를 살아가는 중보자들과 예루살렘이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 C. Only one city is called “the city of the great King” (Jesus)—He loves Jerusalem with great zeal. 예수님이 오직 한 도시만을 “큰 임금의 성”이라 말씀하셨다. 주님은 예루살렘을 크게 질투하심으로 사랑하신다.

<sup>35</sup>[Jesus said] “...Jerusalem...is the city of the great King. (Mt. 5:35)

<sup>35</sup>[예수님이 말씀하시길] ...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마 5:35)

<sup>2</sup>Thus says the LORD...“I am zealous for Zion [Jerusalem] with great zeal... (Zech. 8:2)

<sup>2</sup>만군의 여호와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sup>3</sup>여호와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컬겠고... (슥 8:2-3)

<sup>2</sup>The LORD loves the gates of Zion more than all the dwellings of Jacob. (Ps. 87:2)

<sup>2</sup>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시 87:2)

One of the reasons that we pray for Jerusalem is because God loves Jerusalem in a special way. Zechariah 8:2 says, “I am zealous with great zeal for Jerusalem!” It is common to hear people say, “My church does not do Israel, or why are we to care so much about Jerusalem?” In just one sentence, it is because “God is very zealous for Zion” (Zech. 8:2). Zion and Jerusalem are often used interchangeably in Scripture. There are nuances with some small differences but basically Zion refers to the city of Jerusalem. 우리가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하는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특별한 방법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스가랴 8 장 2 절은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라고 말한다. 사람들에게 흔히 듣는 말은 “나의 교회는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거나 “왜 우리는 예루살렘에 그렇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까?”이다. 한 문장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시기” 때문이다(슥 8:2). 시온과 예루살렘은 종종 성경에서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시온은 예루살렘 도시를 가리킨다.

Psalms 87:2, “The Lord loves the gates of Zion or Jerusalem more than any other region in Israel or the earth. He loves Jerusalem more than any other city. That is an intense statement. Jesus referred to Jerusalem as the city of the great King” (Mt. 5:35) He is talking about Himself as the great King. He was saying, “It is My city!”

*There is only one city that is Jesus' personal city forever. Earthly Jerusalem is named as the counterpart of the New Jerusalem in heaven. The New Jerusalem will come down to the earthly Jerusalem (Rev. 3:12; 21:2, 10) —that is a subject that we will cover at another time.*

시편 87 장 2 절, “여호와께서 시온 성문과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다른 지역이나 땅보다 더 사랑하시는도다.” 그분은 다른 어떤 도시보다 예루살렘을 더 사랑하신다. 이는 강력한 선언이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큰 임금의 도시라고 말씀하셨다.” (마 5:35) 그분은 자신이 큰 임금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예수님은 “그것은 나의 도시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 개인의 도시는 영원히 단 하나뿐이다. 지상의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에 상응하는 도시이다. 새 예루살렘은 지상의 예루살렘으로 내려올 것이다(계 3:12; 21:2, 10). 이 주제는 나중에 다룰 것이다.

1. The Lord blesses those who pray for Jerusalem.  
주님은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을 축복하신다.

***<sup>6</sup>Pray for the peace of Jerusalem: “May they prosper who love you... (Ps. 122:6)***  
***<sup>6</sup>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시 122:6)***

***<sup>10</sup>Rejoice with Jerusalem...all you who love her...[and] all you who mourn for her...  
<sup>11</sup>that you may drink deeply and be delighted with the abundance of her glory.” (Isa. 66:10-11)***

***<sup>10</sup>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기뻐하라 <sup>11</sup>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빨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사 66:10-11)***

*In Psalm 122:6 the Lord promised to prosper anyone who prays for Jerusalem—His city. We pray for Jerusalem because God loves that city in a unique way but the Lord wants us to know He will bless any who choose to agree with Him related to His plans and purposes for Jerusalem. Isaiah 66:10-11 mentions two different groups. Those who love Jerusalem and those who mourn for Jerusalem. He said, “Rejoice with Jerusalem **if you love her** and rejoice with Jerusalem **if you mourn for her.**” That could be the same person—in one way we love Jerusalem and in another way we mourn for her feeling pain over the suffering of Jerusalem.*

시편 122 편 6 절에서 주님은 그분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나 형통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독특한 방식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한다. 그러나 주님은 예루살렘에 대한 그분의 계획과 목적과 관련하여 그분께 동의하기로 선택한 모든 사람을 축복하실 것임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 이사야 66 장 10-11 절에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과 예루살렘을 위하여 애통하는 자들의 두 그룹이 언급된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면 함께 기뻐하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슬퍼하면 함께 기뻐하라**”고 하셨다. 그것은 같은 사람일 수 있다. 한편으로 우리는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예루살렘의 고통을 슬퍼한다.

*The Lord continues in verse 11 “If you will rejoice in My narrative over Jerusalem and engage with it” then He promised that you will drink deeply from the overflow of God touching Jerusalem. You will be delighted by the abundance of the glory of God that touches that city.” That is an interesting and important promise. I believe that as the body of Christ even in May 2023, as 5 million pray for Jerusalem at least an hour a day that the global body of Christ will be enriched by this. I have asked historians of the Prayer Movement and Messiah leaders in Israel “Have they ever seen a time where 10,000 Gentiles prayed for Israel for 10 straight days?” and the ones I talked with said “No, we have never heard of it.” We are not talking about 10,000*

*Gentiles praying for Jerusalem for 10 days we are talking about 5 million praying of Israel for 21 days. My point is that what will happen in May 2023 is historic. There is a deep connection with the body of Christ on the earth praying for Jerusalem and the spirit of revival increasing globally on the body of. They do not even have to understand it all but as we align with the biblical narrative for Jerusalem and give ourselves to it—it will grow in our understanding and in our heart. There is a deep connection between the blessing of God on the global Church (the end time revival) and contending for God's blessing on Israel and Jerusalem. The Lord says "You will be delighted by the overflow of the glory that I release on Jerusalem as you will stand for Jerusalem."*

주님은 계속해서 11 절에서 “너희가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이야기를 즐거워하고 그것을 행하면” 예루살렘에 임한 하나님의 풍성함을 너희가 깊이 마시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그 성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는 흥미롭고 중요한 약속이다. 2023 년 5 월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500 만 명이 예루살렘을 위해 하루에 적어도 한 시간씩 기도하는 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 전체가 풍성해질 것을 믿는다. 나는 기도 운동 역사가들과 이스라엘의 메시아 지도자들에게 “10,000 명의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위해 열흘 동안 기도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라고 물어본 적이 있다. 내가 이야기를 나눈 사람들은 “아니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우리는 10,000 명의 이방인들이 10 일 동안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500 만 명이 21 일 동안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내 요점은 2023 년 5 월에 일어날 일이 역사적이라는 것이다.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하는 이 땅의 그리스도의 몸과 그 몸 안에서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부흥의 영은 깊은 관련이 있다. 모든 것을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예루살렘에 대한 성경적 이야기에 동의하고 그것에 우리 자신을 바칠 때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자라고 이해가 깊어질 것이다. 세계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마지막 때의 부흥)과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 씨름하는 것 사이에는 깊은 연관성이 있다. 여호와께서 “너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설 때에 내가 예루살렘에 두는 영광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기뻐할 것이요.”라고 말씀하셨다.

2. The Lord blesses people to “the measure” that they pray or give money, mercy, service, etc. 주님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헌금하고 자비를 베풀고 섬긴 “분량”만큼 축복하신다.

***<sup>38</sup> Give, and it will be given to you: good measure, pressed down...and running over...***

***For with the same measure that you use, it will be measured back to you. (Lk. 6:38)***

***<sup>38</sup>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눅 6:38)***

*Jesus said it clearly in Luke 6:38, “Give and it will be given to you, for with the same measure that you use it will be measured back to you.” We usually apply that promise to finances and it certainly involves finances but in context it about the measure that we give mercy to others and it including the measure that we pray for them.*

예수님은 누가복음 6 장 38 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다. 우리는 보통 그 약속을 재정에 적용한다. 그것은 확실히 재정과 관련이 있지만 문맥상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에 관한 것이며 이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포함한다.

*Those who pray for Jerusalem will never outgive God or outrun God's blessing. Thus, any who pray for Jerusalem (because He loves Jerusalem) will experience a greater measure of God's blessing. Thus praying for Jerusalem will affect the body of Christ on the whole earth! The Lord says “I will release an increased measure the blessing back to you!” That blessing will touch your family, children, ministry, economics, business and more. We can never outdo or outrun God in giving to Him and His purposes. He says “I will measure this thing back to you—watch see what happens!” but I mean, I am thinking globally of the body of*

*Christ. And that this thing is deeply connected not just to the five million in May 2023 but let's just say a couple of years from now 50 million and later 100 million Gentiles who are praying for Jerusalem! That is deeply connected to the Great Commission and the end time Church and the great end time revival.*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보다 더 주거나 하나님의 축복을 능가하지 못할 것이다.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예루살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더 많이 경험할 것이다. 이와 같이 예루살렘을 위한 기도는 온 땅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 영향을 미칠 것이다!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 복을 더 많이 내리리라!”고 말씀하신다. 그 축복은 당신의 가족, 자녀, 사역, 경제, 사업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D. Pray apostolic prayers for messianic congregations. See my series on “**Apostolic Prayers that Shift History.**” <https://mikebickle.org/series/apostolic-prayers-prayers-that-shift-history-2020/>  
메시아 교회를 위한 사도적 기도를 하라. “역사를 바꾸는 사도적 기도” 시리즈를 참조하라.  
<https://mikebickle.org/series/apostolic-prayers-prayers-that-shift-history-2020/>

- E. Prophecies concerning Israel and the nations often have two fulfillments—a partial fulfillment in history and in fullness when Jesus returns. The glory released on Israel and the nations in *fullness* at His coming is released now *in part* and in an *increasing* way as we get closer to His return.  
이스라엘과 열방에 관한 예언은 종종 두 번 성취된다. 첫번째는 역사에서 부분적으로 성취되고 두 번째는 마지막 때에 완전하게 성취된다. 그분이 오실 때 온전하게 이스라엘과 열방에 풀려질 영광은 지금 부분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재림에 가까워짐에 따라 증가하는 방식으로 풀려진다.

*Many prophecies in the Old Testament about Jerusalem or even about the Gentile nations often have two fulfillments. There is a partial fulfillment in history and then a complete fulfillment that occurs related to Jesus' second coming. Some read these OT promises for Israel and get confused saying “Did that already happen?” “Yes, in part but the fullness of it will occur when Jesus returns.” We do not have to choose between the partial and complete fulfillment. We do not dismiss their future fullness because of a partial fulfillment in the past.*  
예루살렘이나 이방 나라들에 관한 구약의 많은 예언들은 종종 두 가지로 성취 된다. 역사 속에서 부분적으로 성취된 후에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완전한 성취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구약의 약속을 읽고 “이미 그런 일이 있었느냐?”며 혼란스러워한다. “그렇다,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것이다.” 우리는 부분적인 성취와 완전한 성취 사이에서 선택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과거의 부분적 성취 때문에 미래의 충만함을 무시하지 않는다.

*I want to highlight another important principle—whatever God does in fullness related to Jesus' second coming He will do in part right now and in an increasing way as we draw nearer to His return. Meaning if Jesus will pour His glory out upon Jerusalem in fullness when He comes to establish the Millennial kingdom—those very things He will do in part right now and in an increasing measure as we get closer to the coming of the Lord. Many of the promises on this prayer list will only happen in fullness when Jesus comes!” But since the Lord never changes (Mal. 3:6)—what He will in fullness when He returns is in My heart now! You are asking for greater “down payments” of that glory now and knowing it will increase the closer that we get to His return.*  
또 다른 중요한 원칙을 강조하고 싶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하여 행하시는 충만함은 바로 지금 부분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재림에 가까워짐에 따라 증가하는 방식으로 행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천년왕국을 세우기 위해 오실 때 그분의 영광을 예루살렘에 충만히 부어 주실 것이라는

의미이다. 그분은 바로 지금 부분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오심이 가까워짐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일을 하실 것이다. 이 기도 목록에 있는 많은 약속들은 오직 예수님이 오실 때에만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주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말 3:6) 그분이 다시 오실 때의 충만함은 지금 내 마음에 있다! 당신은 지금 그 영광에 대한 더 많은 “보증”을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가 그분의 재림에 더 가까워질수록 그것이 증가할 것임을 알고 있다.

- F. Speaking to God “about Israel” is an important aspect of “comforting Jerusalem” (Isa. 40:1-2). It leads to speaking to the nations “about Israel,” and gives us authority to speak to Israel “about Israel.” It is not best for Gentiles to stand in proxy for Israel in repenting. We seek to avoid prayers for Israel that are can be interpreted as coming from condescending Gentile voices. 하나님께 “이스라엘에 대하여” 말씀드리는 것은 “예루살렘을 위로하는 것”의 중요한 측면이다(사 40:1-2). 이는 열방들에 “이스라엘에 대해” 말할 수 있게 하고,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에 관해” 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회개하는 것은 최선의 방법이 아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이 목소리를 거들먹거리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를 피하려고 한다

*Isaiah 40:1-2 exhorts us to speak comfort to Jerusalem. The body of Christ in the earth is to tell Jerusalem the biblical narrative for Jerusalem. One way we comfort Jerusalem (not the only way) is to speak to God about Jerusalem. I have discovered that if we speak to God about Jerusalem before long we will be speaking to the nations or the church about Jerusalem. And then once we start speaking to the nations about Jerusalem **it gives us the authority to speak to Jerusalem about Jerusalem!** Because most of the people in Jerusalem do not know the biblical narrative for Jerusalem. The Lord is putting that biblical narrative into the mouths of millions of Gentiles forerunner messengers now. We first talk to God about Jerusalem, as part of comforting, and that leads to us growing in insight, and courage and zeal to talk to the nations and church about Jerusalem and that will give us the moral and spiritual authority to talk to Jerusalem about Jerusalem. Many who live in Jerusalem are not attentive to what Gentiles think about Jerusalem. What Gentiles think about Jerusalem has not gone well for them over many years so they are a little bit hesitant to listen to what Gentiles think about Jerusalem.*

이사야 40:1-2 은 우리에게 예루살렘을 위로하라고 권고한다.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은 예루살렘에 대한 성경적 이야기를 예루살렘에 전해야 한다. 우리가 예루살렘을 위로하는 한 가지 방법(유일한 방법은 아님)은 예루살렘에 대해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다. 나는 우리가 예루살렘에 대해 하나님께 말한다면 머지않아 열방이나 교회에 예루살렘에 관해 말하게 될 것임을 깨달았다. 그런 다음 우리가 예루살렘에 대해 이방인들에게 말하기 시작하면 **예루살렘에 대해 예루살렘에 말할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대한 성경 이야기를 모르기 때문이다. 주님은 지금 그 성경 이야기를 수백만의 이방인 선두주자 메신저들의 입에 넣고 계신다. 우리는 먼저 위로의 일환으로 하나님께 예루살렘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러면 통찰력과 용기와 열정이 자라서 열방과 교회에 예루살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으며, 예루살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도덕적, 영적 권위를 갖게 된다. 예루살렘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주의하지 않는다.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수년 동안 그들에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듣기를 조금 주저한다.

*The point I make here is that by IHOP praying for Jerusalem in every 2-hour prayer meeting for 21 days (that means 84 two-hour prayer meetings a week for 3 weeks so that is 252 prayer meetings in a row). He will bless us more than we imagine!” I like what Stuart Greaves said in a recent message. He said “In this 21-days of*



prayer in May 2023—God will reveal IHOPKC to IHOPKC! We do not know mostly what we are about, we know a little bit but there is a lot we do not even understand. We will grow in understanding our calling. 여기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IHOP 이 21 일 동안 모든 두시간 기도모임에서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이다(즉, 3 주동안 일주일에 84 번의 2 시간 기도회로 연속 252 번의 기도 모임이 된다). 그분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다!” 나는 스튜어트 그리브스(Stuart Greaves)가 최근 메시지에서 말한 것을 좋아하는데 그가 2023 년 5 월 21 일간의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켄사스시티 국제 기도의 집(IHOPKC)를 IHOPKC 에 제시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알지 못한다. 조금 알고 있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많이 있다. 우리는 우리의 소명을 이해하는 데서 성장할 것이다.

*In our 252 prayer meetings over 21 days in May, I emphasize that Gentiles are not to stand in proxy for Jerusalem, or Israel in **confessing their sin**. I say that because there are OT passages where David, Daniel Ezra, Nehemiah, Zerubbabel or various psalmists prayed—confessing the sin of Jerusalem and so some would say “I want to do this because it is biblical” I have heard Gentiles praying publicly, “Oh God, forgive Israel for their rebellion, sin and hard-heartedness!” Yes some of the Jewish prophets prayed that way—but as Gentiles, I do not believe it is right for us to publicly pray that way because **we have not suffered with Israel**. We have not borne their long history of shame and adversity. We have not suffered with them so we have no authority to confess their failure. They may confess their sins but I do not want Gentiles in our midst doing that because that would be so easily interpreted by Jewish people as a condescending voice of Gentiles who do not know their suffering nor have they bore their Israel’s burdens from the past. I have seen sincere Gentile intercessors do that over the years saying, “Well it is in the Bible! I am just praying what the Bible prayed!” I say “But you have not suffered with them.” They say “Oh yes, good point, I will focus on praying God’s promises for them!”* 나는 5 월에 21 일 동안 252 번의 기도 모임에서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대신하거나 그들의 죄를 고백하지 말아야 함을 강조한다. 다윗,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 또는 다양한 시편 기자들이 예루살렘의 죄를 고백하며 기도한 구약 구절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성경적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하고 싶다”고 말할 것이다. 나는 이방인들이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들었다. “오 하나님, 이스라엘의 반역과 죄와 강박함을 용서하소서!” 그렇다, 유대 선지자 중 일부는 그렇게 기도했다. 하지만 나는 이방인으로서 우리가 이스라엘과 함께 고통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 G. We pray for all Jewish people—those living in the Promise Land and in the nations (the Diaspora). 우리는 약속의 땅과 열방에 사는 모든 유대 민족(디아스포라)을 위해 기도한다.

*When we pray for Jerusalem, we are also praying for the Jewish people. There are almost 7 million Jewish people who live in the land but we are also praying for the 8-10 million Jewish people who live in the nations or in the diaspora (which is a big word for “the nations”). I have talked with a few Messianic Jewish leaders in the nations who said “I know you are praying for Israel do not forget the Jewish people in the nation—the diaspora. It is a hard time out here!” So let’s keep them before us. I have 21 prayers on this handout. I will give a very brief overview of each. My hope is that you will “put your name” 5 or 10 of them determining to get to know those prayers more in May 2023 and even more over the next year or two!” I have used these 21 passages over years but know that there are well over 100 passages that could have been used in this teaching.* 우리가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할 때 유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다. 거의 700 만 명의 유대인들이 그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또한 열방에 살거나 디아스포라(“열방”에 대한 큰 단어)인 800 만-1000 만 명의 유대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나는 열방에 있는 몇몇 메시아닉 유대인



지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당신이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열방에 있는 유대인(디아스포라)들도 잊지 마십시오. 여기 밖에서 힘든 시간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기억하고 기도하자. 이 노트에는 21 개의 기도가 있는데 각각에 대해 매우 간략하게 설명하겠다. 나의 소망은 당신이 2023 년 5 월에 그 기도를 더 많이 알기로 결정한 5 명 또는 10 명의 “이름을 입력”하고 내년 또는 2 년 동안 더 많이 알게 되는 것이다!” 나는 수년간 이 21 개의 구절을 사용했지만 이 가르침에 사용될 수 있었던 100 개 이상의 구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 II. 21 PRAYERS 21 기도

- A. Prayer #1 (Num. 6:23-26): God instructed the priests on how He wants them to bless Israel.  
기도 1 (민 6:23-26):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

<sup>23</sup>“Speak to Aaron...saying, ‘This is the way you shall bless the children of Israel. Say to them: <sup>24</sup>“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sup>25</sup>the LORD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sup>26</sup>the LORD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peace.”” (Num. 6:23-26)

<sup>23</sup>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sup>24</sup>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sup>25</sup>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sup>26</sup>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민 6:23-26)

*Prayer #1 Numbers 6 – God told Moses “Tell the priests of Israel how they are to bless Israel.” There are many implications to each phrase. I do not what to develop each phrase tonight. But only to point out passages to use when praying for Israel! This is a great passage to use!” Again, tomorrow I will pray each of these prayers for about 2 minutes on an EP (extended play) to give at least some language to those who might say “I have never prayed that passage so I do not have language to for that passages yet.”*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제사장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축복할지 말하라”고 말씀하셨다. 각 문구에는 많은 의미가 있다. 나는 오늘밤 각 문구를 자세히 살펴보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할 때 사용할 구절을 주목하기 위해서이다! 이것은 사용하기에 좋은 구절이다!” 다시 말하지만, “나는 그 구절로 기도한 적이 없어서 아직 그 구절에 대해 할 말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언어를 주기 위해 내일 나는 EP 에서 이 기도들을 각각 약 2 분 동안 기도할 것이다.

- B. Prayer #2 (Isa. 60:2 with Isa. 62:1-11): that God’s glory shall be manifest openly in Jerusalem and that He would act in unprecedented ways—even by raising up 100 million intercessors for Israel.  
기도 2 (사 60:2, 62:1-22):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에 공개적으로 나타날 것과 이스라엘을 위해 1 억 명의 중보자를 세우심으로 전례 없는 방식으로 행하여 주시길 기도한다.

<sup>2</sup>“...darkness shall cover the earth, and deep darkness the people; but the LORD will arise over you, and His glory will be seen upon you. <sup>3</sup>The Gentiles shall come to your light... (Isa. 60:2-3)

<sup>2</sup>...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sup>3</sup>[이방]나라들은 네 빛으로, ... (사 60:2-3)

<sup>1</sup>For Zion’s sake I will not hold My peace, and for Jerusalem’s sake I will not rest, until her righteousness goes forth as brightness... <sup>2</sup>The Gentiles shall see your righteousness... <sup>4</sup>You shall

*be called Hephzibah, and your land Beulah; for the LORD delights in you, and your land shall be married.* <sup>5</sup>...as the bridegroom rejoices over the bride, so shall your God rejoice over you.

*<sup>6</sup>I have set watchmen on your walls, O Jerusalem; they shall never hold their peace...<sup>7</sup>till He makes Jerusalem a praise in the earth...<sup>11</sup>The LORD has proclaimed to the end of the world: "Say to the daughter of Zion, 'Surely your salvation is coming...'" (Isa. 62:1-11)*

<sup>1</sup>나는 시온의 의가 빛 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 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sup>2</sup>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못 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 <sup>4</sup>다시는 너를 버림 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빨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sup>5</sup>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sup>6</sup>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sup>7</sup>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sup>11</sup>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움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 62:1-11)

*Prayer #2 – The glory of God will be openly displayed in the most unprecedented way in the city of Jerusalem. This happens when Jesus returns to establish His 1,000-year Millennial kingdom. However, Jesus is releasing an increase of His glory in Jerusalem in part now even before He releases it in fullness when He returns.*

기도 2 –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에서 전례 없는 방식으로 공개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천년왕국을 세우기 위해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일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시기 전에 이미 부분적으로 예루살렘에서 그의 영광을 증가시키고 계신다.

*The reason we put Isaiah 62 in the title of this 21 day prayer initiative—calling it The Isaiah 62 Global 21-days of Prayer for Israel . Why? Isaiah 62 has 12 verses—each verse describes the glory of God in Jerusalem. There is no chapter in the Bible that equals Isaiah 62 in describing how God has promised to release glory on Jerusalem. It is my guess that about 95% of the global body of Christ are not yet familiar with Isaiah 62. That is why we put it in the title so that by the end of May 2023 there will over 10 million believers who be somewhat aware of Isaiah 62 in a new way. I do not mean that 10 million will pray an hour a day for Israel in May—yes over 5 million will. But I feel sure that another 5 million or so will stop to talk about Israel this May and they will just begin to look at Isaiah 62 and say “What is Isaiah 62?” I believe the Lord is establishing Isaiah 62 into the global conversation of the body of Christ.*

이사야 62 장을 이 21 일의 기도 성회의 제목, “이스라엘을 위한 이사야 62 장 글로벌 21 일 기도”에 넣은 이유가 무엇인가? 이사야 62 장은 12 절로 구성되어 있다. 각 절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묘사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루살렘에 영광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지 설명하는 이사야서 62 장과 같은 장(章)은 성경에 없다. 전 세계 그리스도의 몸의 약 95%가 아직 이사야서 62 장에 익숙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2023 년 5 월 말까지 이사야서 62 장을 새로운 방식으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신자가 1000 만 명이 넘도록 제목에 붙였다. 5 월에 천만 명이 이스라엘을 위해 하루에 한 시간씩 기도할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그러나 5 백만 명은 넘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또 다른 500 만 명 정도가 이번 5 월에 이스라엘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멈추고 이사야서 62 장을 보고 “이사야서 62 장이 무엇인가?”라고

말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나는 주님께서 이사야서 62 장을 그리스도의 몸의 세계적인 대화로 확립하고 계시다고 믿는다.

*Isaiah prophesied that deep darkness will cover the earth leading up to the coming of the Lord and at the same time the glory will be seen on Jerusalem (Isa. 60:2). People ask, "Are things going to get better or worse?" "Both—the darkness will get darker at the same time that the light gets brighter." The glory of God will be seen on Jerusalem.*

이사야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짙은 흑암이 땅을 덮을 것이며 동시에 영광이 예루살렘에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했다(사 60:2). 사람들은 “상황이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라고 묻는다. “둘 다이다, 빛이 더 밝아지는 동시에 어둠은 더 어두워질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에 나타날 것이다.

*Isaiah 62 (only two chapters later) elaborates on what the glory of God on Jerusalem will look like. I will only mention this briefly. It would take many messages to adequately develop the 12 verses in Isaiah 62. There are many implications. For example, in verse 1 "For Zion's sake" that is the same as "For Jerusalem's sake" God said, "I will not hold My peace" that means that He will not be silent. Technically, God is not silent now. What He is saying in 62:1 is that "Compared to the intense way that He will intervene and speak at the end of the age through an unprecedented increase of prophetic dreams and visions and more—it will seem as though God had been silent and inactive for a long time when compared to what He will do in that hour."*

이사야 62 장(단 두 장 뒤에)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모습일 것인지 자세히 설명한다. 이것만 간단히 언급하겠다. 이사야서 62 장의 열 두 절들을 적절하게 전개하려면 많은 설교가 필요하다. 거기에는 많은 의미가 있다. 예를 들어 1 절의 “시온을 위하여”는 “예루살렘을 위하여”와 같은 의미이다. 하나님은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는데 이는 침묵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이다. 엄밀히 말해 하나님은 지금 침묵하지 않으신다. 이사야 62 장 1 절에서 말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예언적 꿈과 환상 등이 전례 없이 증가하는 것을 통해 통해 개입하고 말씀하실 강렬한 방법과 비교하면 마치 하나님이 오랫동안 침묵하고 활동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보일 것이라는 뜻이다.

*He said, "For Jerusalem sake, I will not rest" meaning I will not be inactive. On a global stage, He will intervene in power for Jerusalem in an unprecedented way that will be seen by all the nations." God is not inactive now in the absolute sense. But compared to what He will do leading up to the glory released on Jerusalem in context to Jesus' return to establish His throne on the earth—it will seem as though God was silent and inactive throughout much of history when compared to what He will do at the end of the age." Verse 3, "the Gentiles will come to your light." There is a deep connection to the favor of God on Jerusalem and the Great Commission being completed and the missions' movement coming to fullness. They are connected. Again, I am not wanting to teach the implications of each phrase in these 21 passages in this session. He is saying, "When I release My glory in Jerusalem in a great measure, the nations will know Me! The nations will tremble!"*

*because there is a deep connection to what happens in the nations with what happens in Jerusalem. Most Gentile believers are unaware of this connection. But soon millions more will be leaning into that conversation.* 그는 “예루살렘을 위해, 나는 쉬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그분이 소극적이지 않을 것을 의미한다. 세계 무대에서 그분은 모든 나라가 볼 수 있는 전례 없는 방식으로 예루살렘을 위해 능력으로 개입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의미에서 지금은 소극적이지 않으시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상에 그분의 왕좌를 세우기 위해 돌아오시는 맥락에서 예루살렘에 공개된 영광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하실 일에 비교하면, 하나님은 역사의 많은 부분에서 침묵하고 활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3 절 “이방인들이 너희 빛으로 나아오리라.”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과 지상대명령이 완성되고

선교운동이 충만해지는 것은 깊은 관련이 있다. 그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다시 말하지만, 나는 이 세션에서 이 21 개의 구절에 있는 각 문구의 의미를 가르치고 싶지 않다. 그분은 “내가 예루살렘에서 내 영광을 크게 나타낼 때 열방이 나를 알게 될 것이다! 만국이 떨리라!” 열국에서 일어나는 일과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이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이방인 신자들은 이 연결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곧 수백만 명이 그 대화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In verse 2, Isaiah prophesied, “The Gentiles” (or the nations of the world) will be impacted by what happens in Jerusalem. The nations will see righteousness in the city and people of Jerusalem. In verse 4, Isaiah in essence says “Tell Jerusalem that God calls her “Hephzibah” that is the Hebrew for “I delight in her,” we are so speak this message!” So here we pray for the spirit of revelation of the love of God (Eph. 1:17) to touch Jewish people—that is how we pray verse 4 which highlights that God calls Jerusalem “Hephzibah!” and by the way these truths of God’s affection for Israel are also true of His affection for all Gentile believers too. Whatever God feels towards Jewish people in His love and affection He also feels towards the whole body of Christ. Yes, He has special purposes for the city of Jerusalem, but since God’s heart never changes (Mal. 3:6) and because He loves only in fullness we are sure He loves all of His family in fullness.*

2 절에서 이사야는 “이방인”(또는 세상 열국)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로 인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했다. 열국은 예루살렘과 그곳 사람들에게서 의를 볼 것이다. 4 절에서 이사야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헵시바”라고 부르신다고 전하라”고 말하는데 이는 히브리어로 “내가 그녀를 기뻐한다”는 뜻이다. 우리는 이 메시지를 선포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는 영(엡 1:17)이 유대 민족을 감동시키도록 기도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헵시바”라고 부르신 것을 강조하며 4 절로 기도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애정에 대한 이러한 진리는 또한 모든 이방인 신자에 대한 그분의 애정에 대해서도 진리다.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과 애정으로 유대 민족에 대해 느끼시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몸 전체에 대해서도 느끼신다. 그렇다, 그분은 예루살렘 도시에 대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변하지 않으시며(말 3:6) 그분은 온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그분의 모든 가족을 온전히 사랑하신다고 확신한다.

*The biblical story throughout the Old Testament is “the God story” that is told through the experience of Israel. The Lord wants the entire Gentile body of Christ to find our story in “the God story” displayed in how He leads and responds to Israel.*

구약 전체에 걸친 성경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경험을 통해 들려주는 “하나님 이야기”다. 주님은 그리스도의 온 이방인의 몸이 그분이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응답하시는 방식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야기”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찾기를 원하신다.

*Israel is made up of weak, broken, rebellious humans who fail and yet God’s glory, compassion, and restoration is released in and through Israel. The Lord is saying “Gentiles, watch how I feel about Israel and see how I feel about you too! You will find your story in “this God story”—in the biblical history and story of Israel.*

이스라엘은 실패하고 연약하고 부서지고 반항적인 인간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긍휼과 회복이 이스라엘 안에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 나타난다. 주님은 “이방인들아, 내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펴보고 너희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라!” 성경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이야기인 “이 하나님 이야기”에서 당신의 이야기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Verse 11, “The Lord has proclaimed to the ends of the earth (Gentiles) to say to the daughter of Zion” (which means Jerusalem)— “tell Jerusalem your salvation is coming! There is a lot more to say about Isaiah 62. The point in verse 11 is that God called Gentiles (across the earth) to proclaim the salvation message to Jerusalem. So how do we pray this? We ask God to raise up forerunner messengers across the earth—shepherds after His own heart (Jer. 3:15) who will proclaim the biblical salvation narrative to Israel since God commanded the nations to say this message to Jerusalem. We pray, “Raise up messengers! Millions of them all over the earth!”

11 절, “여호와께서 땅 끝(이방인)까지 선포하여 이르시되 딸 시온(예루살렘)에게 예루살렘에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이사야 62 장에 대해서는 더 할 말이 많다. 11 절의 요점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해 이방인들(온 땅의)을 부르셨다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열방에 이 메시지를 예루살렘에 전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성경적 구원 이야기를 이스라엘에게 선포할 선두주자 메신저들을 온 땅에 일으키시기를 간구한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의 메신저들을 일으켜주십시오!”

- C. Prayer #3 (Dan. 9:4-19 with Ps. 102:13-21): that God’s face would shine on Jerusalem and that He would hear, see, forgive, and act in unprecedented ways for the city that is called by His name.  
기도 3 (단 9:4-19, 시 102:13-21):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얼굴 빛을 비추시고 그분의 이름으로 불리는 도시를 위해 전무한 방식으로 듣고, 보고, 용서하고, 행하시길 기도한다

***“I prayed...and said, “Great and awesome God, who keeps His covenant and mercy with those who love Him...”<sup>17</sup>cause Your face to shine on Your sanctuary...<sup>18</sup>Incline Your ear and hear; open Your eyes and see...the city which is called by Your name...because of Your great mercies. <sup>19</sup>O Lord, hear! O Lord, forgive! O Lord, listen and act! Do not delay...” (Dan. 9:4-19)***

<sup>4</sup>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 <sup>7</sup>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sup>17</sup>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sup>18</sup>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sup>19</sup>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단 9:4-19)

***<sup>13</sup>You will arise and have mercy on Zion; for the time to favor her, Yes, the set time, has come...***

***<sup>16</sup>For the LORD...shall appear in His glory...<sup>18</sup>This will be written for the generation to come, that a people yet to be created...<sup>19</sup>He...viewed the earth, <sup>20</sup>to hear the groaning of the prisoner, to release those appointed to death, <sup>21</sup>to declare...His praise in Jerusalem... (Ps. 102:13-21)***

<sup>13</sup>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 <sup>15</sup>이에 못 나라가 여호와와 이름을 경외하며 ... <sup>16</sup>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라 <sup>18</sup>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sup>19</sup>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 보셨으니 <sup>20</sup>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sup>21</sup>여호와와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시 102:13-21)

Prayer #3 – In Daniel 9 and Psalm 102 we pray that God will act and intervene in history in dramatic ways. In a way that the whole earth will see how He intervened in the lives of people and the affairs of the nation of

Israel. The first thing that Daniel does is to appeal to God's faithfulness to keep His covenant (9:4). Many prayers in the Old Testament start by appealing to God's faithfulness to keep His covenant. Many of God's people lose confidence in God's leadership. They cry out, "Where are You, Lord? Life is hard and confusing, where are You Lord?" So when we say "God, You are a covenant keeping God! We are saying, "You are reliable! You never lie! You are true!" As we keep saying that to Him, it touches our heart with that truth." It is common for an appeal to His covenant faithfulness to be highlighted in many biblical promises and prayers. In Daniel 9:17, the Daniel confessed Israel's sin but again, I do not think that is what we as Gentiles are to publicly confess Israel's sin. However, verse 17 we pray for His intervention "Shine Your face on the city of Jerusalem!" Verse 18 "Incline Your ear, open Your eyes because of Your mercies!" Verse 19 "Hear, forgive! Listen! Act!" There is more language that we can use to elaborate on each of those verbs in Daniel 9:17-19.

기도 #3 - 하나님이 사람들의 삶과 이스라엘 민족의 일에 어떻게 개입하셨는지를 온 땅이 보게 될 것이다. 다니엘이 하는 첫 번째 일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호소하는 것이다(9:4). 구약의 많은 기도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호소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다. 그들은 "주님, 어디 계십니까?, 인생은 힘들고 혼란스러운데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라고 부르짖는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당신은 언약을 지키는 분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진리입니다!"라고 우리가 그분께 계속 그렇게 말할 때 그 진리가 우리 마음을 감동시킨다. 많은 성경적 약속과 기도에서 그분의 언약적 신실하심에 대한 호소가 강조되는 것은 흔한 일이다. 다니엘 9 장 17 절에서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죄를 자백하였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의 죄를 공개적으로 자백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17 절에서 우리는 그분의 개입을 위해 기도한다. "예루살렘성에 주의 얼굴을 비추소서!" 18 절, "주의 인자하심에 귀를 기울이고 눈을 뜨소서!" 19 절 "귀를 기울이시고 용서하소서! 귀를 기울이소서! 행하소서!" 다니엘서 9 장 17-19 절에 나오는 각 동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언어가 더 있다.

The Psalmist says the same thing in essence in asking for God to intervene but using differently terminology than Daniel 9. The Psalmist says "Arise! and have mercy on Jerusalem! Arise!" The imagery is of God sitting on His throne but at a critical prophetic time of history "He stands up" to act! That is what it means "Arise!" And I do not know that God actually stands up. But the imagery of "Arise" means to intervene in the earthly arena in power with miracles. The Psalmist declared "For it is the time to favor Zion (Jerusalem) yes, the set time has come!" (102:13). **There is a one primary set time in history** when God acts on a global level, He acts with zeal for Jerusalem in a way that billions see Him. That specific "set time" is coming in the days ahead. Psalm 102:13 calls this "the set time"—it occurs in the generation the Lord returns. Beloved, I believe that in May 2023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over 5 million Gentiles will be praying for Israel for at least one hour a day for 21 days. We are not we good at praying but that is okay—the Lord does not mind that part. May 2023 will be an escalation of "the set time" because there is only one set time in history that Psalm 102 is talking about. I believe that we are in the early days of that "set time" of salvation history. What will Jesus do?" He promises to appear in His glory in Jerusalem!" (102:16). Wow, that is a big statement! The Lord will appear in glory by releasing miracles and prophetic dreams and visions, and much more.

시편 기자는 다니엘 9 장과는 다른 용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개입해 달라고 요청하지만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말한다. 시편 기자는 "일어나소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자비를 베푸소서! 일어나소서!"고 말한다. 그 비유는 하나님이 그의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역사의 중요한 예언적 시기에 "일어나서" 행하시는 것"을 뜻한다! 그것이 "일어나라!"라는 뜻이다. 하나님이 실제로 일어서시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일어나라"의 이미지는 기적을 통해 권세를 가지고 지상의 무대에 개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편 기자는 “시온(예루살렘)을 은혜롭게 할 때니 정한 때가 이르렀도다”라고 선언했다(102:13). 역사에는 중요한 한 번의 정한 기한, 하나님께서 세계적 차원에서 행하실 때가 있다. 그분은 수십억의 사람들이 그분을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예루살렘에 대한 열심으로 행하신다. 그 구체적인 “정해진 시간”이 앞으로 다가올 것이다.

시편 102 편 13 절은 이것을 “정한 기한”라고 부르는데 이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세대에 나타난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2023 년 5 월에 역사상 처음으로 5 백만 명이 넘는 이방인들이 21 일 동안 하루에 적어도 한 시간씩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할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는 기도를 잘하지 못하지만 괜찮다. 주님은 그 부분을 개의치 않으신다. 시편 102 편이 말하는 역사상 정해진 시간은 단 한 번뿐이기 때문에 2023 년 5 월은 ‘정해진 시간’을 고조시킬 것이다. 나는 우리가 구원 역사의 “정한 때”의 초기 단계에 있다고 믿는다. 예수님은 무엇을 하실 것인가? 그분은 예루살렘에서 그분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것을 약속하신다!” (102:16). 와우, 이것은 중요한 선언이다! 주님은 기적과 예언적인 꿈과 환상 등을 풀어주심으로 영광 중에 나타나실 것이다.

*You know over the last years, thousands of Muslims have testified of having had a dream of “the Man in white.” It has become a common thing to hear that “the Man in white” visited them dream resulting in many Muslims being saved. That has happened occasionally in Israel but we are entering “the set time” where Jesus will appear to Jewish people in dreams and visions even as He visited Saul of Tarsus who became the apostle Paul (Acts 9). I believe that as a result of 5 million praying for Israel in May 2023 and beyond that God will appear to Jewish people, and there will be an increase of miracles that reveal His glory.*

지난 몇 년 동안 수천 명의 무슬림이 “흰옷 입은 남자”의 꿈을 꾸었다고 증언했다. “흰옷 입은 남자”가 꿈에 그들을 방문하여 수많은 무슬림들이 구원받았다는 소식을 듣는 것은 흔한 일이 되었다.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서도 가끔씩 일어났지만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된 다소의 사울을 방문하셨던 것(행 9 장)처럼 유대인들의 꿈과 환상에 나타나실 “정한 기한”로 들어가고 있다. 2023 년 5 월 이스라엘을 위해 500 만명이 기도한 결과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나타나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적이 늘어날 것을 믿는다.

*In 102:18, the Psalmist clarified that he was praying for “a people yet been born or created” in the future. Psalm 102 was written a couple thousand years ago—all through salvation history the prophets have been waiting for the “set time.” Beloved I believe that we are in an escalation of that eschatological “set time.” In verse 21, he makes it clear that he is talking about Jerusalem. Many Old Testament prophecies are Jerusalem centric because it is the city of the great King. It is the only city that is “His city.”*

102 장 18 절에서 시편 기자는 미래에 “아직 태어나거나 창조되지 않은 백성”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분명히 밝혔다. 시편 102 편은 수 천년 전에 기록되었다. 모든 구원 역사를 통해 선지자들은 “정한 기한”을 기다려 왔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우리가 그 종말론적 “정한 기한”이 고조되는 때에 있다고 믿는다.



- D. Prayer #4 (Isa. 11:11-16): The Lord promised to restore the remnant of Israel to God and from the land. Isaiah described areas to the north (Assyria), south (Cush), the east (Elam) and west (islands). One common view is that the “first time” that God recovered Israel was out of Egypt. The other common view is that the “first” recovery of the remnant of Israel from Babylon, Assyria, Egypt, etc. was over a 100-year period (538-444 BC), and the “second time” is associated with 1948 and continuing (possibly about 100 years?) until the end of the Tribulation with the Messiah being on earth (11:10) overseeing a final regathering patterned after the exodus under Moses(11:15-16). 기도 4 (사 11:11-16): 주님은 이사야가 묘사한 북쪽(앗시리아), 남쪽(구스), 동쪽(엘람), 서쪽(섬들) 땅들로부터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셨다. 한 가지 일반적인 견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처음”이 애굽에서 나올 때였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일반적인 견해는 바빌론, 아시리아, 이집트 등에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의 “첫 번째” 회복이 100 년 기간(BC 538-444 년)에 걸쳐 있었고 “두 번째”는 1948 년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하시는 때인 환란이 끝날 때까지(11:10) 계속(아마도 약 100 년?) 될 것이고 주님이 모세 때의 출애굽(11:15-16) 이후 패튼의 최종 재집합을 감독하실 것이다.

<sup>10</sup>***“In that day there shall be a Root of Jesse [Jesus], who shall stand as a banner to the people***  
<sup>11</sup>***...in that day that the LORD shall set His hand again the second time to recover the remnant of His people who are left, from Assyria [Jordan, Syria, Iraq] and Egypt, from Pathros [Upper Egypt] and Cush [Ethiopia], from Elam [Iran] and Shinar [Iraq], from Hamath [Syria] and the islands of the sea [Mediterranean]. <sup>12</sup>**He will set up a banner...and will assemble the outcasts of Israel, and gather the dispersed of Judah from the four corners of the earth...** (Isa. 11:10-12)***

<sup>10</sup>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sup>11</sup> 그 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앗수르[요르단, 시리아, 이라크]와 애굽과 바드로스[이집트 상부]와 구스[에디오피아]와 엘람[이란]과 시날[이라크]과 하맛[시리아]과 바다 섬들[지중해]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sup>12</sup>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사 11:10-12)

Prayer #4 –In Isaiah 11, the Lord promise to set His hand a “second time” to restore (11:11). Many understand the “first time” that the Lord recovered the remnant started after Israel was in captivity for 70 years in Babylon. Under the leadership of Zerubbabel in 538 BC. **The period of that “recovery” lasted about 100 years.** It started when Zerubbabel led about 50,000 Jewish people back to Jerusalem from Babylon around 538 BC then later more came back with Ezra and later more returned under Nehemiah. About a 100 year restoration process occurred in bringing Jews back to Israel from the Babylonian captivity. My point is that the recovery was not a one day or one year process but it was nearly a 100 year process. Thus, many believed that the “second recovery” will also be over many decades acknowledge the catalytic moment as being in 1948 when Israel became a nation. Jews were returning to the land of Israel before 1948 but the rebirth of the nation in 1948 was a catalytic moment for this second “recovery.” It again may be nearly a 100 year process (I am not predicting the timing of Jesus’ return). My point is that “second time” has already begun. A million Jews returned to Israel from the former Soviet Union in the 1990s. This is a remarkable number yet it is not nearly finished. I see the return of so many Russian speaking Jews as an installment of the “second recovery” of the Lord calling the Jewish people back to Israel. Jesus will return to complete that second recovery.

기도 #4 - 이사야 11 장에서 주님은 회복시키기 위해 “다시” 손을 펴시겠다고 약속하셨다(11:11).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70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후에 시작된 남은 자들을 주님께서

회복시키신 “처음”을 이해한다. BC 538 년 스룹바벨의 지도 아래 그 “회복”의 기간은 약 100 년 동안 지속되었다. 기원전 538 년경에 스룹바벨이 약 50,000 명의 유대인을 바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며 시작되었고 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에스라와 함께 돌아왔고 나중에 더 많은 사람들이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돌아왔다. 유대인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로 다시 데려오는 데 약 100 년의 회복 과정이 걸렸다. 내 요점은 회복이 하루나 1 년 과정이 아니라 거의 100 년의 과정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두 번째 회복’이 수십 년이 넘을 것이라고 믿었다. 이스라엘이 국가가 된 1948 년은 촉매의 순간임을 인정한다.

- E. Prayer #5 (Isa. 24:14-16 with Isa. 42:10-13): The Lord will inspire new songs that glorify Jesus from all nations (42:10-13) that will be connected to Jesus’ return (42:13)

<sup>14</sup>...they shall sing; for the majesty of the LORD...<sup>15</sup>glorify the LORD in the dawning light...

<sup>16</sup>From the ends of the earth we have heard songs: “Glory to the righteous!” (Isa. 24:14-16)

<sup>14</sup>우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와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sup>15</sup>...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sup>16</sup>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사 24:14:16)

<sup>10</sup>Sing to the LORD a new song, and His praise from the ends of the earth...<sup>11</sup>Let the wilderness and its cities lift their voice, the villages that Kedar [Saudi Arabia] inhabits. Let the inhabitants of Sela [Jordan] sing...<sup>13</sup>The LORD shall go forth [Jesus’ return] like a mighty man; He shall stir up His zeal like a man of war...He shall prevail against His enemies...” (Isa. 42:10-13)

<sup>10</sup>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과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sup>11</sup>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사우디 아라비아]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요르단]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sup>12</sup>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sup>13</sup>여호와께서 용사 같이 나가시며[예수님의 재림] 전사 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사 42:10-13)

Prayer #5 – This is a really good passage about the Lord releasing prophetic songs in the generation the Lord returns, but I will not spend much time on it. It speaks of the Lord calling Israel and Gentiles in the nations who love Jesus to sing songs about the majesty of God. They will sing songs for Jerusalem and from Jerusalem in the timeframe leading up to Jesus’ return. We pray, “Lord, release prophetic new songs and music from heaven which highlight the majesty of Jesus and the biblical narrative of Israel.

기도 5- 이것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세대에 대해 예언적인 노래를 풀어 주시는 주님에 대한 정말 좋은 구절이지만 나는 그것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위엄에 대해 노래하도록 예수님을 사랑하는 열방의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부르시는 주님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어지는 기간에 예루살렘을 위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노래를 부를 것이다. 우리는 “주님, 예수님의 위엄과 이스라엘의 성경적 서사를 강조하는 예언적인 새 노래와 음악을 하늘에서 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

On this very day, at the 10am prayer meeting today, we recorded a new song called “Songs for Jerusalem.” There were people all over the room people weeping because it was so moving. I thought “Lord, release

thousands of songs like this!” From Isaiah 24 we pray, “Lord raise up thousands of new songs about Israel from many nations—from Brazil, Korea, Uganda, Taiwan, Russia, Mexico, Australia and many other places. 바로 오늘 오전 10 시 기도실에서 ‘예루살렘을 위한 노래’라는 새 노래가 나왔다. 너무 감동적이어서 울고있는 사람들이 방전체에 있었다. “주님, 이런 노래 수천 곡을 풀어주세요!”라고 생각했다. 이사야 24 장에서 우리는 “주님, 브라질, 한국, 우간다, 대만, 러시아, 멕시코, 호주 및 기타 여러 나라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수천 개의 새로운 노래를 불러 일으키십시오.”라고 기도한다.

- F. Prayer #6 (Isa. 30:18-30): that He will release His grace on the people and the land of Israel.  
기도 6 (사 30:18-30):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땅에 그분의 은혜를 베푸시길 기도한다

***<sup>18</sup>Therefore the LORD will wait, that He may be gracious to you; and therefore He will be exalted, that He may have mercy on you. For the LORD is a God of justice; blessed are all those who wait for Him. <sup>19</sup>For the people shall dwell in Zion at Jerusalem...He will be very gracious to you at the sound of your cry; when He hears it, He will answer you...<sup>20</sup>your eyes shall see your teachers. <sup>21</sup>Your ears shall hear a [prophetic] word behind you, saying, “This is the way, walk in it,” whenever you turn to the right hand or whenever you turn to the left...<sup>23</sup>He will give the rain for your seed which you sow the ground...your cattle will feed In large pastures...<sup>30</sup>The LORD will cause His glorious voice to be heard, and show the descent of His arm... (Isa. 30:18-30)***

***<sup>18</sup>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sup>19</sup>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 그가 네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네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네게 응답하시리라 <sup>20</sup>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네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네 눈이 네 스승을 볼 것이며 <sup>21</sup>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네 뒤에서 [예언적인]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 <sup>23</sup>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쁨지게 하실 것이며 그 날에 네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sup>29</sup>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 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sup>30</sup>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의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사 30:18-30)***

Prayer #6 –The Lord will release His grace, not only on the people of Israel but on the land of Israel. I want to highlight the power of prayer in verse 18! The Lord desires to be gracious but He is waiting on His people to pray for a greater release of grace!” I thought we were waiting on the Lord!” Well, we are but the Lord is also waiting on us too. Who is waiting on who? Both God's people and the Lord Himself are waiting for a response. He speaks His word stirs our heart and then He waits for us to come and bring it back to Him in agreement. That is called prayer. He says, “I am waiting to be gracious!” meaning, “I have shown you grace but I will give you more grace if you will talk to Me more. Talk to Me more and the grace will increase!” And Isaiah said, “He will be exalted”—note how He defines being exalted it is “by manifesting His mercy on broken lives.” The Lord says, “Talk to Me! I will exalt Myself as a God of unique love and tenderness beyond the scope of any human being. I will show you how great I am by the amount of mercy that I have on broken lives, both of Jews and Gentiles. Then he goes on in verse 19 says He will be very gracious to you, at the sound of your cry, when

*He hears it, He will be gracious. So, we are praying for intercessors to be raised up who will cry out more to the Lord. Yes, intercessors are supposed to pray that the Lord would release more intercessors.*

기도 #6 -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서도 그 은혜를 풀어 주실 것이다. 18 절에서 기도의 힘을 강조하고 싶다! 주님은 은혜를 베풀기 원하시지만 그분의 백성들이 더 큰 은혜를 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나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했다!” 우리도 그렇지만 주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누가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과 주님 모두 응답을 기다리고 계신다. 그분은 그분의 말씀을 말씀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우리가 와서 그 말씀에 동의하며 그분께 그 말씀을 가지고 나오길 기다리신다. 이것을 기도라고 부른다. 그분은 “나는 은혜 베풀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신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지만 네가 나에게 말을 더 많이 하면 더 많은 은혜를 베풀겠다. 나에게 더 많이 말하라 그러면 은총이 더해질 것이다!” 그러자 이사야가 말했다.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라”—그는 높임을 받는 것을 “깨어진 삶에 그분의 자비를 나타내심”으로 정의했다는 것에 주목하라. 주님은 “나에게 말하라! 나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유일무이한 사랑과 온유함의 하나님으로 나를 높이겠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깨진 삶에 대한 나의 자비로 내가 얼마나 큰지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리고 19 절에 “그가 네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네게 은혜를 베푸시리니 그가 들으실 때에 은혜를 베푸시리라”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더욱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중보기도자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한다. 그렇다, 중보기도자들은 주님께서 더 많은 중보기도자들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

*Look at verse 20 “Your eyes will see your teachers”—Amos spoke of a famine of the word of God (Amos 8:11). That was a time when there was so little prophetic insight and so few prophetic messengers in Amos’ day.*

*We pray for the time when Israel will “see” their messengers—thousands of them, young and old, male and female, Jewish and Gentiles from many nations who teach unbelieving Jewish people the biblical narrative of Israel. Now again, almost 7 million Jewish people live in the land of Israel. I have been told that about 20,000 of them are born-again Jewish believers. That leaves the vast majority of the Jews in the land who do not know the biblical narrative for Jerusalem. I pray verse 20 by asking God to “Raise up messengers all over the earth who will teach Israel the truth about who they are to God.” In verse 21, Isaiah referred to the prophetic ministry. Isaiah said that they will hear a word from behind them that provides prophetic correction and/or direction so that Israel would walk in God's will in a mature way. We apply verse 21 by praying for an increase of the prophetic ministry for the Jewish people including words of knowledge and words of wisdom and more!” In verse 30, Isaiah promised that “God’s glorious voice would be heard” well, ultimately Jesus’ voice is going to be heard when He returns with a shout (Isa. 42:13; Joel 3:16; 1 Thes. 4:16)—that is the ultimate fulfillment of this promise. However, if He is going to shout then we know that He is “a God who shouts!” Meaning, He speaks clearly to His people and releases His glorious voice to them. When Jesus shouts at the time of His return, the whole earth will hear it so it will be loud since the whole earth will hear it. God’s glorious voice—since He never changes, we know that He allows people to hear His voice. We also ask the Lord to show the descent of His arm”—thus a mighty demonstration of His power and miracles.*

20 절에 “네 눈이 네 스승들을 볼 것이며” 구절을 보라. 아모스는 하나님 말씀의 기근에 대해 말했다(암 8:11). 아모스 시대에는 예언적 통찰이 매우 적었으며 예언적 메신저들이 아주 적었던 시대이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많은 나라에서 온 수천 명의 젊은이와 노인, 남성과 여성,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의 성경 이야기를 가르치는 메신저들을 “보게 될” 때를 위해 기도한다. 다시 말하지만, 거의 7 백만 명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다. 나는 그들 중 약 20,000 명이 거듭난 유대인 신자라고 들었다. 예루살렘에 대한 성경적 이야기를 모르는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그 땅에 남아 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 진리를 가르칠 메신저들을 온 땅에서 일으켜

주십시오.”라고 20 절로 기도한다. 21 절에서 이사야는 예언 사역을 언급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성숙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예언적인 교정 및 방향을 제공하는 말을 그들 뒤에서 듣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 등 유대 민족을 위한 예언 사역이 증가되기를 기도하며 21 절을 적용한다!”

30 절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장엄한 목소리가 들리리라”고 약속했고,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재림하실 때 그 음성이 들리게 될 것이다(사 42:13; 욥 3:16; 살전 4:16). 그것이 이 약속의 궁극적인 성취이다. 그러나 그분이 외치신다면 우리는 그분이 “외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다. 이는 그분은 그분의 백성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그분의 영광스러운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외치시면 온 땅이 들을 것이며, 온 땅이 들을 것이므로 큰 소리가 날 것이다.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목소리를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는 것을 안다. 우리는 또한 주님께 그분의 팔을 보여주실 것을 구해야 한다. 이는 그분의 능력과 기적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이다.

- G. Prayer #7 (Isa. 33:2-10, 17): that God imparts wisdom, the fear of the Lord, and reveals His beauty. 기도 7 (사 33:2-10, 17): 하나님께서 지혜와 주를 경외함을 전해 주시고 그분의 아름다움을 나타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한다

<sup>2</sup>*O LORD, be gracious to us...be [our] arm every morning, our salvation in the time of trouble...*

<sup>3</sup>*When You lift Yourself up, the nations shall be scattered...<sup>6</sup>Wisdom and knowledge will be the stability of your times, and the strength of salvation; the fear of the LORD is His treasure...*

<sup>10</sup>*“Now I will rise,” says the LORD...<sup>17</sup>Your eyes will see the King in His beauty. (Isa. 33:2-10, 17)*

<sup>2</sup>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sup>3</sup>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sup>5</sup>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심이요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sup>6</sup>네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네 보배니라 <sup>10</sup>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sup>17</sup>네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에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사 33:2-10, 17)

<sup>11</sup>*Teach me Your way...I will walk in Your truth; unite my heart to fear Your name. (Ps. 86:11)*

<sup>11</sup>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시 86:11)

Prayer #7 – Let’s jump right into verse 6, there are many ways to pray this promise. We pray that “wisdom and knowledge would increase”—that the Spirit would release an increase of the knowledge of God with living understanding to the Jewish people (Eph. 1:17). Wisdom will be the stability of the body of Christ in the land of Israel and the stability of the body of Christ across the earth. We pray that the Lord would cause the fear of the Lord to be the treasure of His people.” In Psalm 86:11, the Psalmist prayed, “Lord, unite my heart to fear Your name.” Thus, we pray that the fear of God would enter the heart of the Jewish people (and also into our hearts) in a greater way. Here the Lord is calling us to pray for the Spirit to touch both unbelieving and believing Jews so that the fear of God would increase in their hearts. Of course, unbelievers get saved when the fear of God touches them. And the believers will become more mature in the Spirit

기도 #7 - 바로 6 절로 넘어가서, 이 약속을 기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우리는 “지혜와 지식이 더하여지도록,” 즉 성령께서 유대인들에게 살아 있는 총명과 함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증가시켜 풀어

주시기를 기도한다(엡 1:17). 지혜는 이스라엘 땅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견고하게 하고 온 땅을 가로질러 그리스도의 몸을 안정되게 할 것이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그분의 백성의 보물이 되게 하시기를 기도한다.” 시편 86 편 11 절에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여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유대 민족의 마음(우리의 마음에도)에 더 크게 들어오기를 기도한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 주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과 믿는 유대인 모두를 감동시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증가하도록 기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다. 물론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들에게 임할 때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신자들은 성령 안에서 더욱 성숙해질 것이다.

*Verse 17 is fantastic—the Lord promised, “Their eyes will see King Jesus in His beauty” And again, they will see His beauty in fullness when Jesus appears but we are praying now “Father, reveal more of the beauty of Jesus to the Jewish people in the land of Israel and in the Diaspora (in the nations)! Reveal the beauty of Jesus!* 17 절은 환상적인 구절로 주님은 약속하셨다. “그들의 눈은 왕이신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볼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그들은 그분의 아름다움을 충만하게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아버지, 이스라엘 땅과 디아스포라(열국에 있는)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더 계시하십시오!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계시하십시오!” 라고 기도한다.

- H. Prayer #8 (Isa. 35:1-10): that the glory of God will be openly manifest in the midst of weak people. 기도 8 (사 35:1-10): 하나님의 영광이 연약한 자들에게 명백하게 드러날 것을 위해 기도한다.

*<sup>1</sup>The wilderness...and the desert shall rejoice and blossom...<sup>2</sup>even with joy and singing... they shall see the glory of the LORD, the excellency of our God. <sup>3</sup>Strengthen the weak hands, and make firm the feeble knees. <sup>4</sup>Say to those who are fearful-hearted, “Be strong, do not fear!” Behold, your God...will come and save you.” <sup>5</sup>Then the eyes of the blind shall be opened, and the ears of the deaf shall be unstopped. <sup>6</sup>Then the lame shall leap like a deer, and the tongue of the dumb sing...<sup>8</sup>A highway shall be there...called the Highway of Holiness... (Isa. 35:1-10)*

<sup>1</sup>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sup>2</sup>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와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sup>3</sup>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sup>4</sup>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sup>5</sup>그 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sup>6</sup>그 때에 저는 자는 사슴 같이 뿔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 <sup>7</sup>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늪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sup>8</sup>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 <sup>9</sup>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sup>10</sup>여호와와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 (사 35:1-10)

*<sup>12</sup>“...the works that I do he will do also; and greater works than these he will do...” (Jn. 14:12)*

<sup>12</sup>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요 14:12)

Prayer #8 – is that the glory of God be openly manifest in the midst of weak people. From verse 2 we pray, “Let the Jewish people see the glory of Jesus referred to as “the excellency of God.” Lord release more insight

*into Jesus to both believers and unbelievers alike to see the glory or excellency of God's leadership. Many believers both Jews and Gentiles are depressed and discouraged and think that God does not listen to them, and that has forgotten them. So we pray, "Lord, reveal the excellency of Your leadership to them."*

기도 #8 - 하나님의 영광이 연약한 자들 가운데 드러나게 나타나게 하소서. 2 절부터 기도한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우월하심”이라 일컫는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시오. 주님, 신자와 불신자 모두에게 예수님에 대한 더 많은 통찰력을 주어하나님의 리더십의 영광과 탁월함을 보게 하소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막론하고 많은 신자들이 낙심하고 낙담하여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자기들을 잊어버리셨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는 “주여, 주의 리더십의 탁월함을 그들에게 나타내소서.”라고 기도한다.

*The people that the Lord promises to visit in this prophetic promise are described in 35:3-4 as those who are weak. They have feeble knees, and are filled with fear. God is calling millions of Gentile and Jewish messengers to speak the “the truth of God's excellent leadership to Israel so that fear does not dominate them! Pray for the spirit of revelation with hope that breaks the enemy's hold over them in blinding the eyes of unbelievers—to, break the strongholds of unbelief and the fog over their mind. Lord, impart more living understanding!”*

35 장 3-4 절의 이 예언적 약속에서 주님께서 방문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들로 묘사된다. 그들은 무릎이 약하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 하나님은 수백만 명의 이방인과 유대인 메신저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뛰어난 리더십의 진리를 선포하여 그들이 두려움에 지배 당하지 않게 하신다! 불신자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원수를 무너뜨리시는 소망에 대한 계시의 영을 위해 기도하라- 불신자들의 견고한 진과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는 안개를 제거하여 주십시오. 주님, 살아있는 이해력을 더 부어주십시오.”

*In verses 5 and 6 the blind, the deaf, the lame, the dumb being healed references Jesus' promise in John 14:12 that God's people would see “greater works than these.” We pray “Lord, release the greater works miracles!” The miracles that Moses did in the book of Exodus and the miracles that the apostles did in the book of Acts are two different types of miracles. The miracles in Exodus were the miracles often in the created order such as the Red Sea splitting, a pillar of fire being seen, manna falling from the sky and water flowing from a rock.*

*The miracles in the book of Acts are more miracles of healing and personal deliverance. However, the Lord will combine and multiply the miracles in Exodus and the miracles in Acts on a global level. We are praying “Lord, we thank You that You will do this when You return but do it now in an increased way leading to Your return!”*

5 절과 6 절에서 소경, 귀머거리, 절뚝발이, 병어리가 고침을 받는 자들은 요한복음 14 장 12 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신 예수님의 약속과 관련 있다. 우리는 “주님, 더 큰 기적을 행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한다.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행한 기적과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행한 기적은 서로 다른 두 종류의 기적이다. 출애굽기의 기적은 홍해가 갈라지고, 불기둥이 보이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반석에서 물이 흐르는 등 창조 질서에 종종 나타나는 기적이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기적은 치유와 개인 구원의 기적에 가깝다. 그러나 주님은 출애굽기의 기적과 사도행전의 기적을 전세계적 차원에서 합치시고 증가시키실 것이다. 우리는 “주님, 당신이 다시 오실 때 이것을 행하실 것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의 재림으로 인도하는 더 큰 방법으로 행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한다.



- I. Prayer #9 (Isa. 54:5-17): that God releases favor on Jerusalem in a way that impacts all the nations with the gospel. The end-time revival is connected to Gentiles praying for God's favor on Jerusalem. 기도 9 (사 54:5-17): 하나님은 복음으로 모든 민족에게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예루살렘에 은혜를 베푸신다. 마지막 때의 부흥은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와 관련이 있기에 이것을 위해 기도한다.

***<sup>5</sup>For your Maker is your husband, the LORD of hosts is His name; and your Redeemer is the Holy One of Israel; He is called the God of the whole earth...<sup>10</sup>“My kindness shall not depart from you, nor shall My covenant of peace be removed...<sup>13</sup>All your children shall be taught by the LORD, and great shall be the peace of your children...<sup>15</sup>whoever assembles against you shall fall...<sup>17</sup>No weapon formed against you shall prosper, and every tongue which rises against you in judgment you shall condemn. This is the heritage of the servants of the LORD...” (Isa. 54:5-17)***

***<sup>5</sup>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 <sup>10</sup>... 나의 자비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 <sup>13</sup>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네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 <sup>15</sup>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 <sup>17</sup>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네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 (사 54:5-17)***

*Prayer #9 – Isaiah declared, “Your Maker is your husband” so we appeal to God’s loyal affection and deep tenderness towards His people. It was a startling new insight for Israel to see the Lord as a Bridegroom God (Isa. 54:5; 62:4-5; Jer. 2:2; 3:14; 31:32; Hos. 2:16; Mt. 9:15; 25:1-6; Jn. 3:29; 2 Cor. 11:2; Eph. 5:29-32; Rev. 19:7; 22:17). Jesus is a King with power, a Bridegroom with great desire for His people, the Lord of Hosts which means He is the Captain of the armies of heaven. Thus, He is a warrior who fights for His people. And He is a redeemer who restores broken lives, cities, nations and families. We pray, “Lord! Reveal Your affections as a Bridegroom, manifest Your power to fight for Your people and redeem broken families and cities, etc.*

기도 #9 – 이사야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라”고 선언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충실한 애정과 깊은 부드러움에 호소한다. 이스라엘이 주님을 신랑 하나님으로 보는 것은 놀라운 새로운 통찰력이었다(사 54:5; 62:4-5; 렘 2:2; 3:14; 31:32; 호 2:16; 마 2:16; 9:15, 25:1-6, 요 3:29, 고후 11:2, 엡 5:29-32, 계 19:7; 22:17). 예수님은 권능을 가진 왕이시며, 자신의 백성을 향한 큰 열망을 가진 신랑이시며, 만군의 주님이시다. 이는 그분이 하늘 군대의 대장이심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그분은 그분의 백성을 위해 싸우는 전사이시다. 그리고 깨어진 삶과 도시와 국가와 가족을 회복시키는 구속자이시다. 우리는 “주님! 신랑으로서 당신의 애정을 드러내시고, 당신의 백성을 위해 싸우고 깨어진 가족과 도시 등을 구원하는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십시오.”라고 기도한다.

*God promised to teach the children of His people and to impart peace to them (54:13). We pray for the children of Jewish families (and our children). If pray for Israel’s children, God’s blessing comes back on our children. In verse 17, the Lord declared that “no weapon formed against you will prosper”—we are to declare that over Israel (we also ask for Divine protection for our lives). What we pray for others is released also to us (Lk. 6:38).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평화를 주겠다고 약속하셨다(54:13). 우리는 유대인 가정의 자녀들(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한다.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돌아온다.*

17 절에서 주님은 “너희를 치려고 제조된 어떤 연장도 쓸모가 없을 것이라”고 선언하셨다. 우리는 이것을 이스라엘에 선포한다(우리는 또한 우리의 삶을 위해 거룩한 보호를 구한다).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풀어진다는(눅 6:38).

- J. Prayer #10 (Isa. 45:17-24 with Isa. 52:6-10): that God releases greater understanding of Jesus to Israel leading to her national salvation that will impact all the nations and that God raises up many Gentile messengers who say to Zion (Jerusalem), “Your God reigns.” (Isa. 52:7).

기도 10 (사 45:17-24, 52:6-10):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예수님에 대한 더 큰 이해력을 주셔서 모든 민족에게 영향을 미칠 국가적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시온(예루살렘)에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말하는 많은 이방인 메신저들을 일으켜 주시기를 기도한다(이사야 52:7).

**17 Israel shall be saved by the LORD...<sup>18</sup>...“I am the LORD...<sup>19</sup>I have not spoken in secret... I, the LORD, speak righteousness, I declare things that are right...<sup>22</sup>Look to Me, and be saved, all you ends of the earth...<sup>23</sup>I have sworn...that to Me every knee shall bow, every tongue shall take an oath. <sup>24</sup>He shall say, ‘Surely in the LORD I have righteousness and strength.’”**  
(Isa. 45:17-24)

<sup>17</sup>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 <sup>18</sup>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sup>19</sup>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 <sup>22</sup>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 <sup>23</sup>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sup>24</sup>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 45:17-24)

**6“...My people shall know My name...<sup>7</sup>How beautiful upon the mountains are the feet of him who brings good news...who says to Zion, “Your God reigns!”<sup>8</sup>Your watchmen shall lift up their voices...they shall sing together; they shall see eye to eye when the LORD brings back Zion...<sup>10</sup>The LORD has made bare His holy arm [manifested His power] in the eyes of all the nations; and all the ends of the earth shall see the salvation of our God. (Isa. 52:6-10)**

<sup>6</sup>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 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sup>7</sup>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sup>8</sup>네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

<sup>10</sup>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사 52:6-10)

Prayer #10 – again we see how Israel’s salvation impacts nations. In verse 22 the Lord says, “Look to Me and be saved! He is talking to Israel but He says, “the nations will be saved because they are connected to Israel!” Every knee will bow to Jesus, yes all the redeemed will confess “Only in You can I receive the gift of righteousness! Only as a free gift can I receive it” (Rom. 3:24-28).

기도 #10 – 우리는 다시 이스라엘의 구원이 국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본다. 22 절에서 주님은 “나를 바라보고 구원을 받으라!” 그분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지만 “열방이 이스라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다. 모든 무릎이 예수님께 꿇을 것이다. 그렇다, 구속받은 모든 사람들은 고백할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로 의로움을 받았다. 오직 값 없이 은혜로만 받을 수 있다(롬 3:24-28).”

*Isaiah 52 speaks of “My people” (the people of Israel) “will know My name”—so we pray for the spirit conviction (Jn. 16:8) and revelation of the beauty of Jesus (Isa. 33:17) for the Jewish people. Isaiah said, “Oh how beautiful on the mountains are the feet of him who brings good news” (52:7). These messengers are to say to Zion (Jerusalem), “Your God reigns” not “Our God reigns”—thus, these are Gentiles talking to Jews. I love the famous worship song “Our God Reigns” but the lyrics are not exactly what Isaiah said. He did not say “Our God reigns” but said “Your God reigns” indicating that Gentiles were the messengers.*

*We pray “God, raise up messengers with prophetic understanding, with boldness who are fearless and anoint them with signs and wonders to proclaim Your message to Jerusalem!”*

이사야 52 장은 “나의 백성”(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이름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하므로 우리는 유대 백성을 위해 성령의 확신(요 16:8)과 예수님의 아름다움의 계시(사 33:17)를 위해 기도한다. 이사야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52:7)라고 말했다. 이 메신저들은 시온(예루살렘)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가 아니라 “너희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고 말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 예언적 이해력과 담대함을 가지고 두려움 없는 메신저들을 일으켜 주시며, 그들에게 표적과 기사로 기름을 부어 예루살렘에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한다.

*In verse 8 “And your watchmen” will sing together and will see eye to eye!” Can you imagine the miracle of John 17:21 unity in the body of Christ both in Israel and in the nations in the face of so much division that currently exists with 1,000’s of denominations. Here, the Lord promised to bring His servants into deep unity” (Jn. 17:1-23). Psalm 133 speaks of God releasing the commanded blessing on in unity”*

*In verse 10 again we see all nations being impacted by what happens when these prayers are answered.”*

8 절, “네 파수꾼들이 함께 노래하며 눈이 마주볼 것이다!” 현재 1,000 여개의 교파로 존재하는 분열된 열방과 이스라엘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요한복음 17 장 21 절의 연합의 기적을 상상할 수 있는가? 여기에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깊이 연합시키겠다고 약속하셨다”(요 17:1-23). 시편 133 편은 하나님께서 연합할 때 명하신 축복을 내리신 것에 대해 말하고 있다.”

- K. Prayer #11 (Isa. 43:1-4 with Zeph. 3:12-17): that God will reveal His love for His people Israel and that He would release supernatural protection for them in times of trouble.

기도 11 (사 43:1-4, 습 3:12-17):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환난의 때에 그들을 위해 초자연적인 보호를 베풀어 주시길 기도한다.

<sup>1</sup>...“Fear not, for I have redeemed you [Israel]; I have called you by your name; you are Mine.

<sup>2</sup>When you pass through the waters, I will be with you; and through the rivers, they shall not overflow you. When you walk through the fire, you shall not be burned...<sup>3</sup>I am... your Savior ...<sup>4</sup>Since you were precious in My sight...and I have loved you...” (Isa. 43:1-4)

<sup>1</sup>...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sup>2</sup>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sup>3</sup>대저 나는 ... 네 구원자임이라 ...<sup>4</sup>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사 43:1-4)

<sup>12</sup>“I will leave in your midst a meek and humble people...”<sup>13</sup>The remnant of Israel shall do no unrighteousness...”<sup>14</sup>Sing...rejoice...O daughter of Jerusalem!...”<sup>15</sup>He has cast out your enemy. The King of Israel...is in your midst...”<sup>17</sup>“The LORD your God in your midst, the Mighty One, will save...”He will quiet you with His love, He will rejoice over you with singing.” (Zeph. 3:12-17)

<sup>12</sup>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에 남겨 두리니 ...<sup>13</sup>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sup>14</sup> 시온의 딸아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

<sup>15</sup> 여호와가 네 형벌을 제거하였고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sup>17</sup>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슥 3:12-17)

Prayer #11 – we pray for God to reveal His love for His people and to supernaturally protect them. He says at the end of verse 1 “you are Mine.” Then He gives different scenarios in which He will protect them, “When you pass through the water, I will be with you. When you pass through the rivers, you will not drown because I will protect you. When you pass through the fire, you will not be burned.” Why? Verse 4, “You are precious and I love you!” There will be many miracles of supernatural protection along with the revelation of the tenderness of God’s love for His people Israel. By referencing these promises we also pray for God to bring the Jewish people back to the land of Israel and back to the Lord Himself. There are a few websites that have gathered testimonies of supernatural deliverances from trouble in Israel over the last 75 years since they became a nation in 1948. There are many testimonies of miraculous protection in the 1948 war, in the Suez crisis in 1956, in the Six Day War in 1967, and in the Yom Kippur war in 1973. They have had over 5 military conflicts counting two Intifadas. There are websites that tell the story of how God miraculously delivered various soldiers who were facing great danger. Some of the stories are of unsaved Jewish soldiers who were delivered by angelic activity. There are many different testimonies including whole battalions being trapped by enemy armies and against all odds the enemy suddenly ran away! Years later, the enemy soldiers testified that they saw angels standing behind these Jewish soldiers. Testimony of supernatural deliverances as recorded in the OT as well as in Jewish historical accounts of the Maccabean Revolt (167-160 BC). We are praying for that kind of supernatural intervention in Israel in a way that they will understand the beauty of Jesus and His excellent leadership.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그들을 초자연적으로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한다. 그는 1 절 끝에 “너는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신다. 그런 다음 그분은 그들을 보호하실 다양한 시나리오를 주셨다. “네가 강을 건널 때에 물에 빠지지 않을 것은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기 때문이다.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 아니하리라.” 그 이유는 4 절에 “너는 존귀하고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부드러운 사랑의 계시와 함께 초자연적인 보호의 많은 기적이 있을 것이다. 이 약속에 의하여 우리는 또한 유대 민족을 이스라엘 땅과 주님께로 다시 데려오도록 하나님께 기도한다. 1948 년 이스라엘이 국가가 된 이후 지난 75 년 동안 이스라엘이 어려움에서 초자연적으로 구출되었다는 간증을 모은 웹사이트가 몇 개 있다. 1948 년 전쟁, 1956 년 수에즈 위기, 1967 년 6 일 전쟁, 1973 년 욥 키푸르 전쟁에서 기적적인 보호에 대한 많은 증언이 있다. 그들은 두 번의 인티파다를 포함하여 5 번 이상의 군사적 충돌을 겪었다. 큰 위험에 처한 다양한 군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적적으로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웹사이트가 있다. 일부 이야기는 천사의 활동으로 구출된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 병사들의 이야기다.

대대 전체가 적군에 갇혔는데 적군이 갑자기 도망쳤다는 등 다양한 증언이 있다! 몇 년 후, 적군 병사들은 이 유대인 병사들 뒤에 천사들이 서 있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다. 구약과 마카베오 반란(기원전 167-160 년)에 대한 유대인의 역사 기록에 기록된 초자연적 구원에 대한 증언이다. 우리는 그들이 예수님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뛰어난 리더십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이스라엘에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시길 기도하고 있다.

*Look at Zephaniah 3:17, it is the same truth that “God will quiet Israel with His love, He will rejoice over Israel with singing. What does this include? In face of a storm of fear and despair in the hearts of many Jewish people, particularly as the Muslim nations gather around them or as Iran acquires nuclear weapons in the very near future. (Iran has promised seek to exterminate Israel after they acquire nuclear weapons)*

*Jewish people in the land are aware of Iran’s nuclear capacities and many other terrorist groups and many undoubtedly are feeling fear or despair. The Lord promised to raise up messengers who He will use to quiet the storm of fear and despair in the heart of Jewish people. His messengers will speak to or sing over them on His behalf. How does God sing to humans typically? There are rare occasions when some have witnessed angelic choirs. However, most often God sings to people by anointing singers to sing His songs that touches others (Heb. 2:12). Today at our 10am prayer meeting, we heard an amazing new song called “Songs for Jerusalem” that left many weeping. We pray that the Lord would release thousands of new songs that reveal His heart.*

스바냐 3 장 17 절을 보라, 이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잠잠히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는 것과 같은 진리이다. 여기에는 무엇이 포함되는가? 특히 무슬림 국가들이 그들 주변에 모이거나 가까운 미래에 이란이 핵무기를 획득함에 따라 많은 유대인들의 마음에 공포와 절망의 폭풍이 몰아치고 있다(이란은 핵무기를 획득하면 이스라엘을 멸절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그 땅의 유대인들은 이란의 핵 능력과 다른 많은 테러 단체들을 알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의심할 여지 없이 두려움이나 절망을 느끼고 있다. 주님은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절망의 폭풍을 가라앉히기 위해 사용할 메신저들을 일으키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분의 메신저들은 그분을 대신하여 그들에게 말하거나 노래할 것이다.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인간에게 어떻게 노래하는가? 어떤 사람들이 천사 합창단을 목격한 드문 경우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그의 노래를 부르도록 사람들을 세워 노래하신다(히 2:12). 오늘 오전 10 시 기도모임에서 우리는 “예루살렘을 위한 노래”라는 놀라운 새 노래를 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울었다. 우리는 주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드러내는 수천 곡의 새로운 노래를 발표하시기를 기도한다.

- L. Prayer #12 (Isa. 63:7-64:2): that God would supernaturally intervene and come down to save Israel.  
기도 12 (사 63:7-64:2): 하나님께 초자연적으로 간섭하시고 내려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한다.

***7I will mention the lovingkindnesses of the LORD...the great goodness toward...Israel...***

***15Look down...where are [the manifestations] Your zeal and...the yearning of Your heart...***

***are they restrained? <sup>16</sup>...You are our Father; our Redeemer... <sup>64:1</sup>Oh, that You would rend the heavens...[and] come down that the mountains might shake at Your presence...<sup>2</sup>make Your name known to Your adversaries, that the nations may tremble at Your presence!... (Isa. 63:7-64:2)***

***7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sup>15</sup>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나타났습니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sup>16</sup>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sup>64:1</sup>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 <sup>2</sup>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사 63:7-64:2)

Prayer #12 – That God would break in with power. In verse 15 and the Lord does not mind us praying like Isaiah did when he asked “Where is Your zeal?” He was saying “Lord, I am not seeing Your intervention with power so I ask where is Your zeal or the yearning of Your heart? I know You as a God who is zealous for His people and who yearns for them!” The Lord wants us to ask Him to openly manifest His zeal and the yearning of His heart in a greater measure. We pray rend the heavens or break in with Your power and cause the nations to be alarmed and alerted and seized when You break in with power!” that is what that verse is talking about.  
기도 #12 –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개입하실 것을 기도한다. 주님은 15 절에서 이사야가 “당신의 열성이 어디 있습니까?”라고 물었을 때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개의치 않으신다. 이사야는 “주님, 저는 주님께서 권능으로 개입하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열성이나 당신 마음의 갈망이 어디 있느냐고 묻습니다. 나는 당신이 자기 백성에게 열심이시며 그들을 사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압니다!”말하고 있다. 주님은 우리가 그분의 열심과 그분의 마음의 열망을 더 많이 공개적으로 나타내도록 요청하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주님의 권능으로 하늘을 가르시고 임하십시오. 권능으로 침투하실 때 열방이 놀라게 하고 경계하게 하며 점령하십시오”라고 기도한다!” 이것이 바로 그 구절이 말하는 것이다.

M. Prayer #13 (Hab. 3:2 with Mic. 7:14-20): that He would revive His work as seen in the ministry of Moses, David, Elijah, Elisha, in the Gospels, and the book of Acts and again release great miracles.  
기도 13 (합 3:2, 미 7:14-20): 하나님께서 주님의 일을 모세, 다윗, 엘리야, 엘리사,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때처럼 부흥하게 하시고 큰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시길 기도한다.

<sup>2</sup>...O LORD, revive Your work in the midst of [our] years...in wrath remember mercy... (Hab. 3:2)  
<sup>2</sup>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합 3:2)

<sup>14</sup>Shepherd Your people... <sup>15</sup>“As in the days when you came out of Egypt, I will show them wonders.” <sup>16</sup>The nations shall...be ashamed of their [unprecedented military] might...

<sup>17</sup>They shall be afraid of the LORD... <sup>18</sup>Who is a God like You, pardoning iniquity and passing over the transgression of the remnant of His heritage?... He delights in mercy. <sup>19</sup>He will again have compassion on us... <sup>20</sup>You will give truth to Jacob and mercy to Abraham [Israel]... (Mic. 7:14-20)

<sup>14</sup>... 주의 기업에 양 떼를 먹이시되 ... <sup>15</sup>이르시되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sup>16</sup>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 <sup>17</sup>...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sup>18</sup>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시므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sup>19</sup>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 <sup>20</sup>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이스라엘]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미 7:14-20)

*Prayer #13 – we pray that God would revive His work and release great miracles. Habakkuk prayed, “Oh Lord revive Your work in the midst of the years but in wrath remember mercy!” (3:2). God has released many revivals throughout the Old Testament, for example in King David’s generation there was a spirit of revival. Hezekiah, and Jehoshaphat and other leaders had seasons that some refer to as a “revival” (Ezek. 9:8-9). The book of Acts and Church history is filled with accounts of revivals. So we pray. “God, revive Your work again! Do it again Lord! The miracles that You released in the book of Acts—release them again in our day! The miracles of the first and second great awakenings in America do it again today! The miracles that You did with David, Elijah, and Elisha —do them again today! What You did through Moses, do it again! And even though You will manifest Your wrath in the days to come, we ask You to remember mercy and tenderness!”*

기도 #13 - 하나님의 일을 부흥하게 하시며 놀라운 기적들이 풀어지길 기도한다. 하박국은 “여호와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시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다(3:2). 하나님은 구약 전체에 걸쳐 많은 부흥을 일으키셨다. 예를 들어 다윗 왕 시대에는 부흥의 영이 있었다. 히스기야와 여호사밧과 다른 지도자들의 시대는 어떤 사람들이 “부흥”이라고 부르는 시절이었다(겔 9:8-9).

사도행전과 교회는 부흥에 관한 기사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한다. “하나님, 주의 일을 다시 부흥시키십시오! 다시 해주세요, 주님! 당신이 사도행전에서 보여준 기적을 우리 시대에 다시 보이십시오! 미국에서 일어난 첫 번째와 두 번째 대각성의 기적이 오늘 다시 일어나게 하십시오! 다윗, 엘리야, 엘리사에게 행하신 기적을 오늘 다시 행하십시오! 당신이 모세에게 하신 일을 다시 행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앞으로 진노를 나타내실지라도 긍휼과 온유함을 기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Micah 7 has fantastic promises. In verse 14, we pray, “Lord, shepherd Your people.” How will He shepherd Israel? See verse 15, Micah prophesied, “In the days when I delivered you from Egypt, **I will show you the miracles of Egypt again!**” This is an end-time prophecy that God promised to show Israel the miracles that He did through Moses. The Antichrist’s armies will be terrified by these miracles (Mic. 7:17; Rev. 8-9; 16).*

*Micah said in verse 16 “The nations will be ashamed of their might”—he meant their military might. The Antichrist will mobilize millions of soldiers against Jerusalem but Jesus will destroy him with the breath of His mouth (2 Thes. 2:8) and his armies will be ashamed of their great military might that is easily destroyed by Jesus’ power! We pray, “Lord, release Your power in the nations and terrify the governments in the nations that resist the plans and leadership of Jesus. Verse 18 says, “God delights in mercy!” We pray, “Lord, reveal Your heart of mercy to Israel and give release the spirit of truth to the people of Israel (7:20) .*

미가서 7 장에는 환상적인 약속이 있다. 14 절에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목양하소서.”라고 기도하는데 그분은 어떻게 이스라엘을 목양하시는가? 15 절에 미가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던 날과 같이 다시 너희에게 애굽의 이적을 보이리라”고 예언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행하신 이적을 이스라엘에게 보이시겠다고 약속하신 마지막 때의 예언이다. 적그리스도의 군대는 이 기적들로 인해 겁에 질릴 것이다(미 7:17; 계 8-9, 16 장).

미가는 16 절에서 “열국이 그들의 힘을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말했다. 적그리스도는 예루살렘에 맞서 수백만 명의 군인을 동원할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의 입김으로 그를 멸망시킬 것이며(살후 2:8), 그의 군대는 예수님의 능력에 의해 쉽게 파괴되는 자신들의 막강한 군사력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우리는 “주여, 열방에 당신의 권능을 풀어주시고 예수님의 계획과 지도력에 저항하는 열방의 정부들을 두렵게 하소서.” 기도한다. 18 절에서 “하나님은 인애를 기뻐하신다”고 말한다. 우리는 “주여, 이스라엘에게 주의 자비의 마음을 계시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리의 영을 부어 주소서(7:20)”라고 기도한다.



- N. Prayer #14 (Jer. 32:37-42 with Jn. 17:21): that Israel will be unified and filled with the fear of God (Ps. 86:11). Pray that the Lord raises up an “international family of affection” of both Jewish and Gentile believers who live in love and unity as one New Man (John 17:21-23; Eph. 2:15)  
기도 14 (렘 32:37-42): 이스라엘이 연합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가득차길 구한다.  
주님께서 한 새사람으로서 사랑과 연합 안에서 사는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의 “국제적인 사랑의 가족”을 일으키시도록 기도한다(요 17:21-23; 엡 2:15).

<sup>37</sup>**“I will gather them out of all countries where I have driven them...I will bring them back to this place...”**<sup>39</sup>**I will give them one heart and one way, that they may fear Me forever...**

<sup>40</sup>**I will make an everlasting covenant with them...I will put My fear in their hearts so that they will not depart from Me.** <sup>41</sup>**Yes, I will rejoice over them to do them good, and I will assuredly plant them in this land, with all My heart...** <sup>42</sup>**I will bring on them all the good that I promised them.”**  
(Jer. 32:37-42)

<sup>37</sup>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이 이 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 <sup>39</sup>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sup>40</sup> 내가 ...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sup>41</sup>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sup>42</sup>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렘 32:37-42)

Prayer #14 – That Israel will be unified and filled with the fear of God. Jeremiah prophesied that God would give His people **“one heart and one way”** (32:39). This promise is important today as Israel in experiencing so much division politically, spiritually, socially and more in context to the judicial reforms and the anarchy going on in the culture. The Lord promised to unify the nation of Israel and even to unify the body of Christ in Israel.”

기도 #14 - 이스라엘은 연합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실 것을 예언했다(32:39). 이 약속은 정치적, 영적, 사회적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 사법 개혁과 문화적으로 무정부 상태와 같은 많은 분열을 경험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 이스라엘에게 중요하다. 주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일하고 심지어 이스라엘 안에 그리스도의 몸을 통일시키겠다고 약속하셨다.”

We pray for unity and that God raise up an “international family of affection” so that His family would walk together with affection, honor and unity!” We pray, “Lord, release the fear of the Lord within them!” (32:40). 우리는 연합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가족이 애정과 존중과 연합으로 함께 걸을 수 있도록 “국제적인 사랑의 가족”을 일으키시기를 기도한다! 우리는 “주님, 그들 안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32:40).

- O. Prayer #15 (Ps. 80:1-19): that the Lord would release His strength and light to fully restore Israel.  
기도 15 (시 80:1-19): 주님이 그분의 능력과 빛을 풀어 주셔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위해 기도한다.

<sup>1</sup>**Give ear, O Shepherd of Israel...** <sup>2</sup>**stir up Your strength, and come and save us!** <sup>3</sup>**Restore us...** <sup>4</sup>**cause Your face to shine, and we shall be saved!...** <sup>14</sup>**Return, we beseech You, O God of hosts; look down from heaven and see, and visit** <sup>15</sup>**the vineyard [Israel] which Your right hand has planted, and the branch that You made strong for Yourself...** <sup>18</sup>**Revive us, and we will call upon Your name.** <sup>19</sup>**Restore us, O LORD God of hosts; cause Your face to shine, and we shall be saved!**

(Ps. 80:1-19)

<sup>1</sup>...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 <sup>2</sup>...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sup>3</sup>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sup>14</sup>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이스라엘]를 돌보소서 <sup>15</sup>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sup>18</sup>...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sup>19</sup>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시 80:1-19)

Prayer #15 – The Psalmist prayed, “Shepherd Your people with strength, power, miracles” (80:1-2), restore us (80:3, 19), and revive us (80:18). This is the language that we can use as we remind God of His promises to restore and revive Israel. You will easily add a few more phrases as you elaborate on those simple prayers.

기도 #15 - 시편 기자는 “힘과 능력과 능력으로 주의 백성을 보호하소서(80:1-2), 우리를 회복시키시고(80:3, 19), 우리를 소생시키소서(80:18)”라고 기도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소생시켰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킬 때 사용할 수 있는 언어이다. 간단한 기도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몇 가지 문구를 쉽게 추가할 수 있다.

P. Prayer #16 (Ezek. 20:34-41): that the Lord would plead His case with Israel and bring them into the bond of covenant with Him as He brings them back to the land of Israel from the nations.

기도 16 (겔 20:34-41):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변호하시고 그들을 열방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심으로 그들을 그와 언약의 띠로 맺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한다.

<sup>34</sup>“I will...gather you out of the countries where you are scattered, **with a mighty hand**, with an outstretched arm... <sup>35</sup>I will bring you into the wilderness of the peoples [the nations], and **there I will plead My case with you face to face...** <sup>37</sup>I will bring you into the **bond of the covenant...**

<sup>41</sup>I bring you out from the peoples and gather you out of the countries where you have been scattered; and **I will be hallowed in you before the Gentiles.**” (Ezek. 20:34-41)

<sup>34</sup>능한 손과 편 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sup>35</sup>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sup>37</sup>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 <sup>40</sup>...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 <sup>41</sup>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겔 20:34-41)

Prayer #16 – I love this prophetic promise, well I love all of them! In verse 35 the Lord promised to plead His case with the Jewish people in the wilderness of the Gentile nations! Almost 7 million Jews live in the land of Israel and about 9- 10 million live in Gentile nations. The Lord promised to plead His case with Israel face to face in the nations which includes the Jews who live in America, or Russia, or other nations across the earth.

He will visit and plead His case with them bringing them into the bond of covenant. This is remarkable promise. 기도 #16 – 나는 이 예언적 약속을 사랑한다, 물론 모든 예언을 사랑한다! 35 절에서 주님은 이방 민족의 광야에 있는 유대인들과 함께 그분의 사건을 변호하겠다고 약속하셨다! 거의 700 만 명의 유대인이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으며 약 900 만~1000 만 명이 이방 국가에 살고 있다.

- Q. Prayer #17 (Ezek. 34:11-31 with Jer. 3:14-18): that the Lord would rescue, heal, and unify the Jewish people and release great blessing on them including their agriculture .  
기도 17 (겔 34:11-31, 렘 3:14-18): 주님께서 유대 민족을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연합하셔서 그들의 농업을 포함하여 그들에게 큰 축복을 내려 주시기를 기도한다.

<sup>11</sup>..."I Myself will search for My sheep..."<sup>12</sup>As a shepherd seeks out his flock...so I will seek out My sheep and deliver them...<sup>16</sup>I will seek what was lost and bring back what was driven away, bind up the broken and strengthen what was sick...<sup>26</sup>I will make them...a blessing; and I will cause showers to come down in their season; there shall be showers of blessing.<sup>27</sup>Then the trees of the field shall yield their fruit, and the earth shall yield her increase..." (Ezek. 34:11-27)

<sup>11</sup>...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sup>12</sup>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sup>16</sup>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 <sup>26</sup>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sup>27</sup>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 (겔 34:11-27)

<sup>14</sup>"Return, O backsliding children...for I am married to you...I will bring you to Zion.

<sup>15</sup>I will give you shepherds according to My heart, who will feed you with knowledge and understanding...<sup>18</sup>In those days the house of Judah shall walk with the house of Israel..." (Jer. 3:14-18)

<sup>14</sup>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이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sup>15</sup>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sup>18</sup>그 때에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렘 3:14-18)

Prayer #17 – This is another prayer that God would shepherd His people with His blessings. He promised to search for His lost sheep, to bind up those who are broken and to strengthen those who are sick (Ezek. 34:16). We pray the Lord would do this for Israel but we can also pray these things for ourselves—because God never changes (Mal. 3:6). So we know that if He will do this for Israel that He will also do it millions of Gentiles that His intercessors pray for. Thus, you can pray this for Jewish families and for your family and friends.

기도 #17 –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축복으로 그분의 백성을 목양하기를 바라는 또 다른 기도이다. 그분은 잃어버린 양을 찾고 상한 자를 싸매고 병든 자를 강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다(겔 34:16). 우리는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이 일을 하시기를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말 3:6)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위해 이 일을 행하신다면 그분의 중보자들이 기도하는 수백만의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실 것임을 안다. 따라서 유대인 가족과 가족 및 친구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

The Lord promised to give Israel shepherds after His own heart (Jer. 3:15). So we pray that He would raise up shepherds like David, who was a shepherd after God's heart (1 Sam. 13:14). We pray that the Lord would anoint these shepherd to feed the people of Israel on the understanding and knowledge of God's heart (3:15). We pray, "Lord, reveal the excellency of Jesus' leadership to Israel through the shepherds that You raise up Raise up both Jewish and Gentile messengers to feed Your people on the knowledge of Jesus' and the excellencies of His ways." We pray that He would unify the nation heal them from great strife (3:18).

주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분의 마음에 맞는 목자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렘 3:15).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은 목자를 세우시기를 기도한다(삼상 13:14). 우리는 주님께서 이 목자들에게

기름을 부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지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양육하도록 기도한다(3:15). 우리는 “주님, 당신이 세우신 목자들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예수님의 리더십의 탁월함을 나타내소서. 유대인과 이방인 메신저를 일으켜 당신의 백성에게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그분의 길의 탁월함을 먹일 수 있게 하소서.”라고 기도한다. 우리는 주님이 민족을 연합하게 하시고 그들을 큰 다툼에서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한다(3:18).

- R. Prayer #18 (Amos 9:11-15): that the Lord would restore the tabernacle of David which speaks of establishing the earthly throne of David in Jerusalem or the leadership of Jesus when He returns. We ask the Lord to magnify Jesus’ leadership in all the spheres of society in Israel and the nations. 기도 18 (암 9:11-15):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지상의 다윗의 보좌를 세우는 것을 말하는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시거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분의 리더십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우리는 주님께 이스라엘과 열방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리더십을 확대해 주시기를 간구한다.

<sup>11</sup>“On that day I will raise up the tabernacle of David, which has fallen down...I will raise up its ruins, and rebuild it...<sup>12</sup>that they may possess the remnant of Edom, and all the Gentiles who are called by My name,” says the LORD who does this thing...<sup>14</sup>“I will bring back the captives of My people Israel; they shall build the waste cities...they shall plant vineyards and drink wine from them; they shall also make gardens and eat fruit from them” (Amos 9:11-14)

<sup>11</sup> 그 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 <sup>12</sup>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

<sup>14</sup>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sup>15</sup>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 (암 9:11-15)

Prayer #18 – We pray that the Lord would raise up the tabernacle of David. It is a popular idea to think of the tabernacle of David as the worship and prayer movement. Yes, there is truth to this but it speaks of more than the end-time worship movement. In May 1983, the Lord spoke about what we do in IHOPKC, the Lord said in essence, “**You will have 24 hour prayer in the spirit of the tabernacle of David.**” We did not know what that really meant and then 16 years later in 1999 (24 years ago) I resigned that young adult church and started IHOPKC on May 7, 1999. My point is that the Lord said “**In the spirit of the tabernacle of David**”—because the fullness of the tabernacle of David speaks of Jesus sitting on the throne of David in Jerusalem, thus it speaks of Jesus’ leadership in Jerusalem and in all the nations. When Jesus returns, He will establish His throne in Jerusalem and that throne will operate with night and day prayer with worship across the nations. His throne and global leadership is deeply connected to singing and praying. So we pray, “Father, establish Jesus’ leadership over Jerusalem and Israel fully when Your Son returns. But in this hour magnify Your Son’s leadership more and more! Show His leadership! Cause His glory to break into the Knesset and into the Palestinian authority! Break into the University professors and into Rabbinic Judaism! Reveal the leadership of the Son of David in every sphere of society—the is the spirit of the tabernacle of David. “Lord, do this in context to the prayer and worship movement” in this hour of history more and more.

기도 #18 - 주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시기를 기도한다. 다윗의 장막을 예배와 기도 운동으로 생각하는 것이 대중적인 생각이다. 그렇다, 이것은 일부 진리이지만 다윗의 장막은 마지막 때의 예배 운동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한다. 1983 년 5 월에 주님은 캔사스시티 국제 기도의 집(IHOPKC)에서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 말씀하셨다. 주님은 본질적으로 “너는 다윗의 장막의 영 안에서 24 시간 기도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그것이 진짜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고 16년 후인 1999년(24년 전) 나는 그 청년 교회를 사임하고 1999년 5월 7일에 IHOPKC를 시작했다. 내 요점은 주님께서 “다윗의 장막의 영으로”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다윗의 장막의 충만함은 예루살렘에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말하므로 이는 예루살렘과 열방에서 예수님의 지도력을 말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은 예루살렘에 그분의 보좌를 세우실 것이며 그 보좌는 온 나라에 예배를 드리며 밤낮으로 기도하며 다스리실 것이다. 그분의 보좌와 글로벌 리더십은 노래와 기도와 깊은 관련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한다. “아버지, 아들이 재림하실 때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대한 예수님의 리더십을 온전히 세우십시오. 하지만 지금 아들의 리더십을 더욱 확대하십시오! 그의 리더십을 보여주세요! 그의 영광이 크네셋과 팔레스타인 권력에 개입하십시오! 대학 교수들과 랍비 유대교에 개입하십시오!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다윗의 자손의 리더십을 드러내십시오.” 이것이 다윗의 장막의 정신이다. “주님! 기도와 예배 운동 안에서 이 일들을 더 행하여 주십시오! 역사의 지금 이 순간 더욱 행하여 주십시오.”

- S. Prayer #19 (Ezek. 34:11-31): that the Lord would glorify His name as He supernaturally transforms Jewish people by His Spirit. The nations will see the holiness or transcendent greatness of God's name as they witness the miraculous work that God will do in the lives of Jewish people.  
기도 19 (겔 34:11-31): 주님께서 그분의 영으로 유대인들을 초자연적으로 변화시키실 때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열국은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의 삶에서 행하실 기적적인 일을 목격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 또는 초월적인 위대함을 보게 될 것이다.

<sup>23</sup>*"I will sanctify My great name...and the nations shall know that I am the LORD...when I am hallowed in you [Israel] before their eyes. <sup>24</sup>For I will take you from among the nations...bring you into your own land...<sup>26</sup>I will give you a new heart and put a new spirit within you...<sup>27</sup>I will put My Spirit within you and cause you to walk in My statutes...<sup>30</sup>I will multiply the fruit of your trees and the increase of your fields...<sup>36</sup>Then the nations which are left all around you shall know that I, the LORD, have rebuilt the ruined places and planted what was desolate. I, the LORD, have spoken it, and I will do it...<sup>37</sup>I will also let the house of Israel inquire of Me to do this for them: I will increase their men...the ruined cities be filled with...men."* (Ezek. 36:23-37)

<sup>23</sup>...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 앞에서 너희로[이스라엘]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sup>24</sup>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sup>25</sup>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 <sup>26</sup>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sup>27</sup>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sup>30</sup>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sup>35</sup>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sup>36</sup>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sup>37</sup>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효를 양 떼 같이 많아지게 하되 (겔 36:23-37)

Prayer #19 – In Ezekiel 36 the Lord promised to give the Jewish people a new heart and a new spirit. He will also supernaturally bless Israel's agriculture, livestock, rainfall, social structures, national economy and more. We mostly think of people coming to Jesus and that is the most important, but the Lord has determined for Israel's obedience to the gospel result in impacting every sphere of their society, government, land and more. In the Jewish mindset from the days from Abraham (4,000 years ago), Israel has seen a connection between their obedience to God and God's blessing on their nation in many different areas. They have a deeper sense of this than most Gentiles do. In Ezekiel 36, Lord is in essence saying "I will reveal Jesus to them by the Spirit and will bless their nation in many ways." So we pray, "Lord, since You will do that fully when Your Son returns then do it now in part but in an increased way among the Jewish people!" In verse 37, the Lord said that He would cause the population of Israel to grow numerically but only after they inquired of Him for this growth. Gentiles can also inquire of the Lord for Israel's population growth along with the other promises in Ezekiel 36.

기도 #19 - 에스겔 36 장에서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분은 또한 이스라엘의 농업, 가축, 강수량, 사회 구조, 국가 경제 등을 초자연적으로 축복하실 것이다. 우리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대부분 생각하지만 주님은 이스라엘이 복음에 순종하는 것으로 그들의 사회, 정부, 땅 등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도록 결정하셨다. 아브라함 시대(4,000 년 전)의 유대적 사고방식에서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여러 분야에서 그들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 사이의 연관성을 보았다. 그들은 대부분의 이방인들보다 이것에 대해 더 깊은 감각을 가지고 있다. 에스겔 36 장에서 주님은 본질적으로 "내가 성령으로 그들에게 예수를 나타내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의 나라를 축복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한다. 37 절에서 주님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수효가 증가하는 것을 구할 때에만 이스라엘의 인구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방인들도 에스겔 36 장의 다른 약속과 함께 이스라엘의 인구 증가에 대해 주님께 구할 수 있다.

- T. Prayer #20 (Ezek. 37:1-14): is to prophesy to the dry bones of unbelieving Israel (37:4) and to the breath of God (37:9) to impart spiritual life to Israel in the face of great hopeless (37:11).

기도 20 (겔 37:1-14): 믿지 않는 이스라엘의 마른 뼈들(37:4)과 하나님의 생기(37:9)에 예언하여 큰 절망에 직면한 이스라엘에게 영적 생명을 나누어 주시기를 기도한다(37:11).

<sup>4</sup>Again He said to me, "Prophecy to these bones, and say to them, 'O dry bones, hear the word of the LORD... surely I will cause breath to enter into you, and you shall live...'" <sup>9</sup>Also He said to me, "Prophecy to the breath...say to the breath, 'Thus says the Lord GOD: "Come from the four winds, O breath, and breathe...that they may live"..." <sup>11</sup>He said, "...these bones are the whole house of Israel. They say, 'Our bones are dry, our hope is lost, and we ourselves are cut off!'" <sup>12</sup>"...say... <sup>14</sup>I will put My Spirit in you,... I will place you in your own land." (Ezek. 37:4-14)

<sup>4</sup>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와 말씀들을 들을지어다 <sup>5</sup>...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 <sup>9</sup>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망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습니다 하라... <sup>11</sup>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sup>12</sup>... 대언하여 ... <sup>14</sup>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 (겔 37:4-14)

Prayer #20 – In Ezekiel 37 the Lord commanded Ezekiel to “prophesy to the bones” (37:4), and to “prophesy to the breath” (the wind and life the Spirit) (37:9) and to “prophesy to Israel’s sense of hopelessness” (37:11).

기도 #20 – 에스겔 37 장에서 주님은 에스겔에게 “뼈에게 대언하라(37:4)”, “생기에게 대언하라(37:9)”(바람과 생령) 그리고 “이스라엘의 소망 없음에 대언하라(37:11)”고 명령하셨다.

- U. Prayer #21 (Joel 2:15-32): that the Lord establish solemn assemblies throughout the land of Israel, inspire the leaders of the Jewish people to cry out to Him (2:17), and to increase the activity of His Spirit including prophetic dreams and visions with signs and wonders in the sky and on the earth.
- 기도 21 (욥 2:15-32):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온 땅에 성회를 세우고 유대 민족의 리더들을 감동시켜 그분에게 부르짖게 하시고(2:17) 하늘에서 표적과 기사로 예언적 꿈과 환상을 포함하여 하늘과 땅에 성령의 활동을 더하게 하시기를 기도한다

<sup>15</sup>**Blow the trumpet in Zion, consecrate a fast, call a sacred assembly;** <sup>16</sup>**Gather the people...**

<sup>17</sup>**Let the priests...weep between the porch and the altar; let them say, “Spare Your people, O LORD...”** <sup>28</sup>**“It shall come to pass afterward that I will pour out My Spirit on all flesh; your sons and your daughters shall prophesy, your old men shall dream dreams, your young men shall see visions...”** <sup>30</sup>**I will show wonders in the heavens and in the earth...** <sup>31</sup>**The sun shall be turned into darkness, and the moon into blood, before the coming of the great and awesome day of the LORD...** <sup>32</sup>**whoever calls on the name of the LORD shall be saved. For...in Jerusalem there shall be deliverance...among the remnant whom the Lord calls.”** (Joel 2:15-32)

<sup>15</sup>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sup>16</sup> 백성을 모아 ...

<sup>17</sup>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sup>28</sup>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sup>29</sup> 그 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sup>30</sup>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 <sup>31</sup> 여호와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 같이 변하려니와 <sup>32</sup> 누구든지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와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와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욥 2:15-32)

Prayer #21 – To blow the trumpet in Zion (Jerusalem) means to sound the alarm through prophetic messaging in Jerusalem to call them to engage in “solemn assemblies” where the people gather for prayer and fasting (2:12-15) and where the priests (spiritual leadership) of the nation pray, “Spare Your people God” (2:17). Notice the word “afterwards” (2:28), this is related to “after” the priests fasted and prayed (2:12-17). That is “after” they pray and fast there would be an outpouring of the Spirit with signs, wonders, miracles, prophetic dreams and visions” (2:28-29). The Lord would show signs the sky and wonders on the earth (2:30). We are to pray that God would move on Jerusalem to call solemn assemblies and for their leadership to pray and that of these things would happen in their midst “before” Jesus returns (2:31). In 2:32, it is clear that Joel 2 is particularly spoken to Jerusalem, though Joel 2 has application to larger body of Christ around the world. Amen, let’s stand!!!

기도 #21 – 시온(예루살렘)에서 나팔을 분다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예언적 메시지를 통해 기도하고 금식하는 ‘성회’(2:12-15)와 나라의 제사장(영적 지도자)들이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2:17)라고 기도하는 곳에 참석하도록 경종을 울린다는 뜻이다.

“그 후에”(2:28)라는 단어에 주목하라. 이것은 제사장들이 금식하고 기도한 “후”(2:12-17)와 관련이 있다. 그들이 기도하고 금식한 “그 후에”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예언의 꿈과 환상으로 성령이 부어질 것이다”(2:28-29). 여호와께서 하늘의 징조와 땅의 기사를 보이시리라(2:30).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움직이셔서 엄숙한 집회를 소집하고 그들의 지도자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러한 일들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2:31) 그들 가운데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한다. 요엘서 2 장은 전 세계 그리스도의 더 큰 몸에 적용되지만 32 절은 특별히 예루살렘에 대해 말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아멘!